



샘물교회(담임 정기정 목사)가 1월 17일 라 미라다 새물교회 본당에서 창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말씀·성령·축복의 샘물되는샘물교회창립 1세와 다음세대가 하나되는 '샘 곁에 심기운 샘물교회' 되리

오렌지카운티 라 미라다 지역에 기반을 둔 샘물교회(담임 정기정 목사)가 창립됐다.
 이 교회 담임인 정牧사는 섬기던 미국교회 그린힐스침례교회의 한어부 사역을 사임하고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것이다.
 그리고 17일 이 교회 개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창립예배를 드렸다.
 정 목사는 파이어크루세이드를 창립해 1세와 1.5세, 2세가 하나되는

성령 부흥운동을 이끌고 있는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샘물교회는 지난해 6월 23일부터 개척을 준비하며 예배 드려 왔고 이어 8월 23일부터는 미국교회인 리더교회와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다.
 현재 자녀를 포함해 100여 명이 출석하고 있다.
 이날 창립 감사예배에서는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가 '샘 곁에 심기운 샘물교회'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민승기 목사(OC교회

장), 김승식 목사(캘리포니아 남침례회 개척선교부)가 축사, 강순영 목사(JAMA 대표)가 축도했다.
 이 예배에는 약 200여 명의 성도와 하객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특별히 샘물교회의 청년부, 유스, EM으로 구성된 중창팀과 갓스이미지가 각각 특송으로 함께 했다.
 한편, 이 교회는 오는 22일(금) 오후 8시부터 23일(토) 오후 7시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중보기도'란 주제 아래 폴 호킨스 박사(YWAM 중보

기도학교 설립자)를 강사로 세미나를 연다.
 이 세미나에서는 정기정 목사와 함께 강영수 목사(LABC 대표간사), 김정애 목사(라이트하우스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선다.
 세미나를 마친 23일 오후 7시부터는 파이어크루세이드 연합부흥집회가 열린다. 이 세미나 및 집회에 대한 문의는 김정애 목사(818-523-4766)에게 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아베디니 목사 석방 이란 감옥 복역 3년만에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이란 감옥에 수감되었던 미국 국적의 사예드 아베디니 목사가 3년만에 드디어 자유를 되찾았다. 주요 세계 언론매체에 따르면 아베디니 목사는 이란에 구금되어 있던 세 명의 다른 미국인들과 함께 16일(현지 시간) 석방되었다. CNN은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네 명의 석방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아베디니 목사가 수감되어 있던 기간 그를 위한 청원 운동을 이끌어 온 나그메 아베디니 사모는 성명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됐다. 고난의 시간 동안 기도로 우리 가족과 함께 해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미국 교계 지도자들도 아베디니 목사의 석방 소식에 기쁨을 표했다.

“남가주장로협 분열종식 대통합”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가 지난 2년여 간의 분열을 종식하고 대통합을 이뤘다.
 7일 열린 총회에서 극적인 대통합을 이루고 제41대 회장에 이창건 장로를 선출했다. 분열 과정에서 발생했던 흥, 김 장로도 제명을 철회하고 복권시켰다. 17일에는 나성한 인연합장로교회에서 제41대 회장 취임감사예배도 드렸다.
 예배 순서지 상으로 최형호 장로는 제40대 회장으로, 김영 장로는 증경회장으로 기록됐다. 이창건 회장의 취임사에 이어 이임사는 최

형호 장로가 전했지만 공로패는 최형호, 김영 장로 모두에게 수여됐고 김영 장로는 증경회장 자격으로 취임식의 사회를 맡았다. 이창건 회장에 취임패는 최형호 장로가 전달했고 장로협기는 김영 장로가 전달하는 등 양측에 공평하게 순서가 돌아갔다.
 분열 상태의 남가주장로협에서 2년간 회장을 했던 최형호 장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일하려 했지만 실수도 많았고 모든 일을 은혜롭게 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할 뿐이다. 그러나 큰 문제



남가주장로협 회장 취임식이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없이 오늘 회기를 마치게 되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는 한기형 목사가 “비전이 이끄는 장로회”라는

제목으로 전했고 남가주한인목사회장 엄규서 목사가 축도했다. 중현선교회 민중기 목사가 서면으로 축사를 보냈고 미주베델교회 정요

한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한국장로회총연합회 이철구 대표회장, 박종근 명예회장, 이정균 증경회장, 강자현 자문공동회장, 이종식 총무 등도 LA를 방문해 행사에 참여했다.
 신인회장 이창건 장로는 현재 중현선교회 증경장로다. 84년 한류관계전선위원회 위원장, 제13회 한국의 날 집행위원장, LA한인회 운영위원장, 민주평통LA협의회 회장, LADUNTA인 라이온스클럽 회장, LA북부한인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연합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교계의 영적 지도자들의 후원,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재직과 칭찬으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준형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개발·토렌스, 알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3-7-21 재능캠프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ly.moon65@gmail.com
 www.Mylivdream.com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공동주최 : LA한인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주관 :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Tel : 323.735.3000 Fax: 323.735.3111
 Email : koreanchurch981@gmail.com
 Website : scalckc.org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제7차 사랑의 쌀 나눔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쌀 한 포기 단비 되어 마른 땅에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쌀 나눔

“제 7차 사랑의 쌀 나눔 운동”에 후원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사랑의 실천이요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한 것이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선을 위하여 협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제 7차 사랑의 쌀 나눔”운동은
 1) '도움이 필요한 이웃중심'의 나눔 실현
 2) 나눔의 '크기에 매이지 않는 진실된 후원'
 3) 선교적 목적도 분명히 하여, 주관자인 남가주교회들이 1400 여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성도 50 명 이하인 140개의 작은 교회의 친교발상을 1년간 책임지는 나눔
 4) 사랑의 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 사설교육기관들과 사회봉사 단체들을 통해 나눔
 5) 인종을 초월하여 이웃의 필요에 따라, 나눔 품목을 다변화 하는 목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2/21~2/6 동안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후 40일 이내로 언론사들을 통해 후원자와 후원단체 및 재정 내역을 공개합니다.

초대합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사무예배
 invitation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교회를 섬기는 교협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2016년 시무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형제 동거의 아름다움으로 2016년을 함께 시작해 주십시오.

- ▶당일일정: 4~5pm 시무예배
5~6pm 저녁만찬
- ▶일시: 2016년 1월 24일(일) 오후 4시
- ▶장소: 세계야가페선교회
- ▶주소: 933 S. Lake Street, LA, CA 90006
- ▶문의: T. (213)368-7991~5(세계야가페선교회)
T. (323)735-3000(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5-3000, (Fax) 323-735-3111, Email:koreanchurch981@gmail.com

“남가주벤엘교회 부에나팍 이전 감사예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되리

남가주벤엘교회가 부에나팍으로 예배당을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1월 17일 주일에 드렸다. 새 예배당의 주소는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90620다.

이날 예배는 오병익 담임목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용남 목사(미주예성 서부지방회 부서기)가 기도하고 성기호 목사(한국 성결대학교 전 총장)가 “일곱 금 촛대와 일곱 별(계1:16-20)”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성 목사는 “남가주벤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상에 그리스도

의 향기와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부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강양규 목사(미주예성 서부지방회 회장)와 최한오 목사(미주예성 총회장), 박용덕 목사(미주예성 서부지방회 증경회장) 등 교단 관계자들이 축사를 전했다.

이중 강 목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인규 기자



예배당 이전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후, 식순을 맡았던 목회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한국 협력해 세계에 기여하자”

KCCD 아제르바이잔 총영사관 오찬에 초청



주 LA 아제르바이잔 총영사관에서 열린 이 오찬에는 총영사와 영사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LA 한인교계 지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KCCD(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 대표 임혜빈)는 11일 주 로스앤젤레스 아제르바이잔 총영사관의 초청으로 오찬에 참석해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간의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특별히 종교간 화합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이 모임에서 너시미 아가에브 총영사는 “한국은 아제르바이잔의 형제 국가”라며 “현재 아제르바이잔 내에서 40여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두 국가는 문화적 연계성이 매우 강하

고 언어의 기원도 함께 나누고 있다. 한국은 매우 중요한 협력국”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국민의 95%가 무슬림이지만 기독교인도 4만5천명, 유대교인도 약 3만명이 있다”면서 “종교 간 화합의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무슬림, 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이 모두 함께 평화와 존엄성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제르바이잔의 전체 인구는 총

959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KCCD의 임혜빈 회장은 “아제르바이잔이 보여준 종교적 화합의 모습은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전쟁과 인종 간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말하고 “아제르바이잔은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는 열쇠를 지닌 국가이며 오늘의 모임이 두 커뮤니티가 협력하여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식도학생들 미국 초등학교 방문”

미주성결교 오레곤 성결교회 후원



한국 전라북도 식도 분교 학생 3명이 미주성결교 오레곤 성결교회 후원으로 미국을 방문하던 중 부에나팍 산마리노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한국 전라북도 식도 분교 학생들 3명이 이곳 LA를 방문했다.

이 초청은 그 섬에서 목회하는 박영민 목사의 주선과 미주성결교 부총회장 오레곤성결교회 이광천 장로가 후원하여 이뤄졌다.

이 학생들은 10일 간의 일정으로 LA, 포틀랜드, 샌디에고 등을 방문하던 중 이곳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 중앙교육구 산마리노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이 학교 학생들과 식사하며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학교 교장 스테시 장 박사는 USC교육학 박사 출신인 한국인으로 4년 전에 이 학교 교장이 되었다.

장 박사는 현재 39세로, 교육구 근무 경력도 있다. 남부 명문 밴더빌트대학교 출신으로 교육계에서는 이미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러 상을 받기도 했다.

이 학교는 다민족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13년도부터 디스틴트 스쿨로 업그레이드된 우수 모범학교로 정평나 있다.

‘십일조 홀릭’ 강조한 소강석 목사

최근 높은뜻정의교회 오대식 담임목사가 ‘헌금없는 주일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가운데, 17일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가 주일예배에서 ‘십일조 홀릭’이란 제하로 설교해 관심을 끌었다.

소 목사는 “저는 1월 둘째 주, 셋째 주만 되면 십일조에 대한 설교를

한다. 복 받고 은혜 받으라고 성경대로 하는 설교”라며 “십일조는 성도들에게 기본이며 기초가 되면 중요한 축복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십일조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 십일조를 해야만 천국을 가고, 안 하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며 “그럼에도 십일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무이며, 동시에 축복을 받기 위한 특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 소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면서 자원하고 감사하고 ‘홀릭’(중독)에 빠져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했다가 말았다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실 것”이라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일조를 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헌금없는 주일 운동’ 오대식 목사

높은뜻정의교회 오대식 담임목사가 지난 10일 주일예배에서 ‘헌금없는 주일 운동’ 취지를 밝혔다.

오 목사는 “사실 이 운동은 우리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하는 신앙훈련의 일환이다. 우리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와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어 시작을 결심했다. 흔쾌히 기쁘

게 받아주신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운동을 한다고 해서 교회의 기존 헌금이 줄거나 예산 부족으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다”며 “오히려 교인들이 헌금하는 기쁨과 보람이 있어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독교일보

창립 12주년을 축하합니다!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racemi.com
TEL : 714) 446-1000, 1004, 6200, FAX : 714) 446-6207
은혜세계기도센터(365일 24시간 OPEN) TEL : 714) 446-1005
예배: 5:30am, 8:00pm, www.gracewpc.com

은혜한인교회
그레임스미선대학 (G.M.U, 신학교) TEL : 714) 525-0088
Miracle Center #305호 www.gm.edu
은혜기도원 TEL : 951) 277-1188
11985 Indian Truck Trail, Corona, CA 92883

은혜교회 예배안내

성인주일예배 (VC)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GWPC 은혜세계기도센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00 / (월~토)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수요 성도양육 과정	오전 8:00
교육부 주일예배 (MC)		안목과정	오후 8:00
영아~초등부	오전 9:20 / 오전 11:30	금요예배 (VC)	오후 8:00
중·고등부 (EM/KM)	오전 9:20 / 오전 11:3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EM 대학부	오후 2:00	EM 대학부	오후 7:30
		중고등부 (EM/KM)	오후 8:00
청년부 예배 (GWPC)		농이교회 주일예배 (C&B)	오전11:00(C&B) / 오전11:30(VC)
목요 8pm(MC203) 금요 7:30pm(MC Cafe) 주일 2pm		English Service 주일예배 (MC)	오전11:30(VC)
English Service 주일예배 (MC)		Jesus' Light (발달장애인주일예배) (MC)	오전11:30
Main Service	오전 9:20 / 오전 11:30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6200 www.gracemi.com

인랜드온누리교회(담임 박성호 목사 · 9806 Arrow Route, Rancho Cucamonga)는 LA 다운타운에서 동쪽으로 37마일 떨어진 샌개브리얼 산기슭에 자리잡은 랜초쿠카몽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튼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교회는 약 8년 전인 2008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선랜드 인근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의 캠퍼스교회로 출범, 크리스천들과 인생의 목적을 찾는 불신자들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아름다운 공동체

■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찾아

인랜드온누리교회

박성호 목사에 따르면 이 교회는 ANC온누리교회, 베이커스필드온누리교회, 샌안토니오온누리교회 등과 자원을 나누는 가운데 동역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 작년 6월까지의 ANC온누리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3년 담임으로 부임해 평균출석 150여 명에 달하는 교인들을 섬기고 있는 박성호 목사는 "주님의 꿈을 함께 꾸며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해 오늘도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열심히 달려간다"는 말로 교회를 소개한다.

핵심 비전은 지성소 예배, 치유와 회복, 선교, 공동체 훈련, 크리스천 교육 등 5가지.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그는 전원 분위기가 물씬한 자체 예배당에서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키워내는 사역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목숨 걸려고 애쓰는 것은 예배다. 한인 교인들이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연약한 이유는 바로 예배에서 치유와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확신에서다. 박 목사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이 매 주일 가동돼 살아있는 예배를 위한 뜨거운 간구를 울리고 예배 시작 15분 전에는 기도, 안내, 헌금 등을 맡은 담당자들이 담임목사실에 모여 기도로 준비한다"고 소개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 예배'입니다. 교회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각자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되도록 강조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1년에 3차례 정도 2박3일 일정의 내적 치유세미나를 열고 있다. "유진소 목사님이 계발하신 이 세미나는 프레스 디아스와는 다른 내용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사명을 깨닫게 해 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교인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는 가정의 건강이 필수이기에 온 가족이 참여해 한 달간 31가지 제목으로 구하는 '가정의달 기도 캠페인'을 오는 5월 인랜드지역교역자협, LA동부교역자협 등과 펼칠 계획이다.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일에 전심전력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평신도 양육 내적치유 세미나 통해 영혼의 힐링 선사

선교는 주로 선교사들과 단체들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성탄절에는 예배당을 구입해 준 멕시코 멕시코칼리교회를 찾아 노방전도를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박 목사는 "병석의 아들을 만나 러티화나에서 버스를 타고 왔다가 절망에 빠져 귀가하는 한 멕시코 여성 암환자를 길에서 만나 30여 분간 기도해 주고 위로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도의 매력인 것 같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2월에는 온 교우가 선교 작정헌금을 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성숙을 향한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1일), 일대일 동반자반(16주), 일대일 지도자반(16주), QT 세미나(6주) 등과 직접 만든 '기초가 이끄는 삶'(12주) '경건이 이끄는 삶'(13주) '경험이 이끄는 삶'(13주) 등이 그것이다. 곧 전도 세미나인 '복음이 이끄는 삶'도 시작된다.

교인들은 지난 해에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로 믿음을 단단하게 했으며, 매주 모이는 월요 성경읽기반, 금요 QT나눔방 등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좋은 디딤돌이 되고 있다. 요즘은 '사랑이 이끄는 삶 15일'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신년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고 있다. "만나서 다독거리 주어야 하는 영혼들이 말씀 듣다가 문제를 해결 받는 것을 봅니다. 내가 아니라 말씀이 그분들을 보살피는 것이죠."

성숙한 성도의 표지는 섬김이기에 1인 1사역을 장려하고 있다는 박 목사는 "지금의 하나님께서 장로, 교사 등을 많이 일으켜 쓰시는 시대"라며 "앞으로 평신도들을 목사 이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리더로 키우기 위해 주류사회의 'TUMI 신학교'(3년 과정)의 분교 설립을 준비 중"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훈련 받은 교인들은 8개 다락방별로 캠퍼선과 결연, 제3세계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박 목사는 크리스천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교육, 교사에게만 의존하는 교육, 1세 중심의 교육 등이 이민교회 교육의 문제"라고 진단한 그는 전인적 접근방식, 실천 중심, 성경적 가치관 형성, 커리큘럼에 따른 평가 등을 필요한 4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어른 목회에 매달리다 보니 EM 목사에게 맡기고 교육에 깊이 관여하지 못했다"고 토로하고 "올해는 교육부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좀 더 참여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회는 고교 졸업 후 대학교로 떠나는 자녀들이 교회에 그들을 위해 기도뿐 아니라 물질로도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작은 규모지만 장학사업 또한 펼치고 있다.

박 목사는 올 들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교회 표어에 맞춰 52회에 이르는 '그 복음 시리즈' 설교를 시작, 교인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는 "절기 때도 복음 설교를 계속 할 것"이라며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에 복음이 바로 전해지면 교회는 갱신될 수밖에 없



인랜드온누리교회 담임 박성호 목사.

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맞아 모든 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시절 김정복 목사가 이끄는 WMC선교회 집회에서 소명을 받고 바이올라대학교와 탈봇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박 목사는 여러 교회의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육부를 맡아 다채로운 경험을 쌓았다. 5년 반 동안 ANC온누리교회에서 교육 목사와 성인목회 부목사를 지내고 노스리지 만남의교회에서 5년간 담임목회도 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민 왔음에도 한국어 구사가 완벽한 그는 "LA에서 자란 덕분이기도 하지만, 신학생 시절 3년간 미주복음방송에서 뉴스 진행 등을 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는 목회, 성도를 사역 도구가 아닌 사역 주체로 삼는 목회, 편한 방법이 아닌 바른 방법을 쓰는 목회, 초신자 중심으로 부흥하는 목회, 건물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부름의 상을 향해 경주하고 있다.

*문의: 909-945-9191

김장섭 전문위원



사랑의 띠로 묶여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함께 힘쓰는 인랜드온누리교회 교인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뉴욕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신년을 맞아 선교와 부흥의 발상지인 윌리엄 칼리지와 무디의 생가를 방문해 기도했다.

“뉴욕 목사회 신년기도회”

선교와 부흥의 발상지 윌리엄타운서...뉴욕교계의 영적 각성을 기원하며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18일 선교와 부흥의 발상지인 메사추세츠 윌리엄타운 미션파크와 무디 생가에서 2016년 신년기도회를 진행했다. 뉴욕목사회의 윌리엄타운과 무디생가 방문은 2010년 이후 5년 만이다.

18일 오전 6시30분에 출발한 뉴욕목사회 회원들은 7시에 차를 정차하고 새벽예배를 드리며 신앙의 기준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3시간 이상 차를 타고 메사추세츠까지 이동한 회원들은 10시30분 목

적지에 도착 본격적인 기도 일정을 시작했다.

윌리엄타운 미션파크에 도착한 회원들은 ‘주여’를 크게 외치고 담을 둘러싸고 회개와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다. 회원들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1년 앞두고 있는 올해 뉴욕 교계가 성경으로 돌아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회는 김상태 목사의 인도로 박 마이클 목사의 기도, 문석호 목사 설교, 김진화 목사 광고, 이종명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합심기도회에서는 김명옥 목사, 김재용 목사, 김연규 목사, 전희수 목사, 김경열 목사가 각각 기도를 인도하면서 미국과 뉴욕, 조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했으며 특히 북한에 억류돼 있는 임현수 목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회원들은 기도회 이후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무디 생가를 방문해 그의 삶을 조명하며 다시 한번 미국과 뉴욕 한인교계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찬양 사역자 최명자 사모가 은혜롭게 찬양하고 있다.

최명자 사모 찬양 콘서트

1월 31일(주일) 오후 3시...총만교회에서

세리토스 총만교회(담임 김기동 목사)가 오는 31일(주일) 오후 1시 “이민자를 위한 위로와 소망의 찬양 콘서트”를 최명자 사모를 초청해 개최한다. 최 사모는 ‘가서 제자 삼으라,’ ‘감사 찬송’ 등으로 유명한

CCM 사역자로, 5천회 이상의 국내의 사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총만교회는 18325 Horst Ave. Artesia, CA90701에 위치해 있으며 교회 측은 이 행사 참석자들에게 점심 식사와 선물을 준비한다.

Nyskc(예배회복운동) 취입예배

지난 22년간 전 세계적으로 예배회복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는 Nyskc World Mission 취입예배가 열린다.

취입에는 사무총장(김은목 목사, 평화교회 담임), 대외협력실장(박재준 목사, GTS 교수), 교회교육연구소장(유은식 목사, GTS 교수),

Nyskc국제훈련원장(최태영 목사, 토론토 임마누엘교회 담임, GTS 교수)

- *일시: 1월 27일(수) 오후 7시
- *장소: 평화교회
- *주소: 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 *문의: 213-251-9191

남가주교협 2016 시무예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김재울 수석부회장, 이하 남가주교협)가 2016년을 시작하는 시무예배를 드리고 만찬을 나눈다. 현재 남가주교협은 LA한인회와 함께 제7차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교계 단체와 성도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

- *일시: 1월 24일 오후 4시
- *장소: 세계야가페선교교회
- *주소: 939 S. Lake St., LA, CA 90006
- *문의: 323-735-3000

성경정독 모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한 성경정독 모임이 열리고 있다.

- *일시: 2016년 1월 부터
- *시간: 매주 1회(목요일) 오전반: 오전 9시-11시, 오후반: 오후 7시-9시
- *장소: LA Christian School
- *주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 *문의: 213-380-6236



◆하나투어와 함께 하는 은혜와 감동의 이스라엘 성지순례 ⑦

<갈릴리 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지방. 티베리아스라고도 하며,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처형되고 부활했지만 주요 활동지역은 이곳 갈릴리였다. 제자들도 배반자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갈릴리 출신. 예수가 처음 기적을 보인 가나, 사람들에게 설교와 치료를 해준 곳인 가버나움의 유명하다. 중심지는 나사렛이며 북쪽은 레바논 산 남쪽은 예즈렐 평야, 동쪽은 갈릴리 호수, 서쪽은 앗코 평야와 접한다. 이스라엘에서 자연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도 손꼽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킨 가버나움과 갈릴리 호수 등이 있다.

갈릴리 북부

1. 텔단

야곱의 열두 지파 중 단 지파가 정착을 한 곳이다. 마치 깊은 숲속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공원을 자연 친화적으로 꾸며놓았다. 또 갈릴리 호수와 사해로 들어가는 요단강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요단강’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어 물이 흘러내려오는 물을 뜻한다.

먼 골란 고원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나게 된다. 이 길목의 오른쪽에 거라사가 있다. 거라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 들린 사람의 속에 있던 귀신들을 내쫓아 2,000마리의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돼지들을 갈릴리 호수 물속에 빠지게 했던 곳이다. 지금 남아 있는 유적들은 5세기 비잔틴 시대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속>

2.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성읍의 명칭은 파네아스(Paneas)라 하는데, 이곳에서 숭배된 판(Pan)의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한다. 또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의 통치구역이요, 수도로 사용된 곳이기도 하다. 로마 황제 ‘가이사’와 자기 이름인 ‘빌립’을 합하여 ‘가이사라 빌립보’라 불리웠으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마 16:16)

문의: 엘에이 본사(213)736-1212
김상준 매니저(213)201-5369
무료전화: 1-877-464-6121
FAX: (213)736-1221, (646)349-3971
웹사이트: www.usahanatour.com
주소: 3053 WEST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매니저 김상준.

3. 거라사

갈릴리 호수를 한 바퀴 돌다 보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고문번호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2016년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말씀으로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월드미션대학교가 키우겠습니다

이민교회와 세계선교 사역자 훈련과정
신학과
성서학박사/신학석사/목회학석사/목회학박사

한국과 미국 상담협회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과정
기독교 상담학과
상담학박사/상담학석사/상담교실 수료증

시간과 공간 제약없이 정규학위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과정
온라인 프로그램
성서학박사/상담학박사/신학석사/상담학석사/목회학석사/가정상담 수료증/유아교육 수료증

교회음악과 예배사역자로 세움 받는 과정
음악학과
음악학박사/음악학석사

한인신학교 최초 ATS 정회원 인준

- 우수한 교수준 / 최신 교육 시설
- 미 군목 장교 지원
- 미 연방정부 학비 지원(FAFSA)
- 유학생 SEVIS I-20 발급
- 미 주류 기독교대학(원) 편·입학

신입생 원서접수 마감
2016년 1월 29일(금)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E-mail: wmuinfo@wmu.edu Website: www.wmu.edu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총 장: 송정명 박사 D.Min
설립자: 임동성 박사 Ph.D., D.Min

입학문의

213.388.1000

E-mail: admissions@wmu.edu
Website: www.wmu.edu



교회 부흥을 위한 성령역사

에베소서 1:17-2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성령에 대한 성경적 증거

본문에 들어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17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다 하셨는데, 그 정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푸뉴마”라고 해서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은 영인데 누구의 영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고, 너 자신이 죄인임을 즉시 깨달아 그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역할로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기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보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내리니”라는 표현을 신학적 용어로는 ‘발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용어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뛰어난 신학자들이 그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요한1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 한글성경에는 이렇게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한글성경은 미국 성경 중에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을 중심으로 해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과 가장 가까운 영어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이 성경은 영국의 제임스 왕이 당시의 경건한 신학자들을 불러서 원문

에 가장 충실한 성경을 만들라는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하늘에서 증거 하시는 이가 셋인데, “The Father”은 “그 아버지”, “The Word”는 “그 말씀”, “and the Holy Ghost”는 “그리고 그 성령”, “and these three are one”는 “그리고 이 셋은 곧 하나이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파테르(아버지)”, “로고스(말씀)”, “푸뉴마(영)”라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성령의 말하게 하심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충만하게 된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행 2:4) 하나님의 뜻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일어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대언자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설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크게 감동하고 마음에 찢려 “우리가 어찌할꼬”(행 2:37)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빌라도를 강요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라는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 날에 구원 얻은 숫자가 3천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와 능력으로 드러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미려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로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학식, 기술, 지혜, 능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설계하거나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에는 필

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이 회개하고 자기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남은 평생에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그 길로 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지시는 은혜 보장의 신앙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의식주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지만, 성령 받은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이 영적인 성과를 기대하시며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고, 하라 하신 일에 순종만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과도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의 엄청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기를 소망하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18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하실 때에는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시고, 진리의 교회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천국 갈 백성 되었음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체취주시고 감동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은 내가 세상문제에 낙심하거나, 어려운 형편으로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생활을 원하시는데, 단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그릇을 보이라 하시는데, 우리는 그 그릇에 세상 것을 채웁니다. 그것을 가지고 좋이라고 기대하며, 자랑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 아파 하시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갈 믿음이 있다면 세상 것은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 쏟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빈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 현시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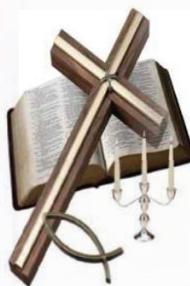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축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연방정부 인준 경영대학 및 대학원 (MBA) 과정 허가 축

혁신적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미성 대학교는 2016년 다음 11과정의 주정부, 연방정부, SEVIS I-20 를 마치고, 최고의 교수와 스태프 시설로 2016년 봄학기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특별히 유학생들을 위하여 다음의 특전을 준비했습니다:

1. 미 연방정부와 CHEA인증을 받은 정식 학위를 수여합니다.
2. 신규 경영학 학사, 경영학 석사 (MBA) 수여합니다.
3. 유학생에게 USCIS 허가 된 자체 I-20 신속하게 발행합니다.
4. 신규 및 전학생 F-1/I-20 Transfer 환영합니다.
5. 신학, 기독교학, 목회, 상담학, 경영학, 간호학, ESL, DMin 학사부터 박사까지 다양한 학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 유학생들에게는 CPT 와 OPT 를 허가해 드립니다.
7. 저렴한 학비, 월 payment 로 학과 수업에 부담이 적습니다.
8. 컴퓨터, 모바일, 인터넷, 온라인 등 세계 어디서나 수업 가능합니다.
9. 현대화된 시설, 넓은 파킹랏, 친절한 서비스,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 흥미 진진한 수업 진행중입니다.
10. 수시 입학 가능합니다.



미성대학교의 신학부의 특징

- 졸업후 목회자, 선교사, 전문상담사 등으로 사역
- 한국과 미국 어디서든 가능한 온라인 강의
- 국내외 우수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뛰어난 교수진
- 이중언어, 영어 강의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ASK: Jin Lee , 입학상담자 (323-643-0301)

EMAIL: admission@aeu.edu

www.aeu.edu

기독교학교 교장 청빙

2016년도 가을 학기
크리스찬 학교 개강을
준비 할 교장선생님을 초빙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연단 시킬 교육의 사명을
가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자 격 : Home School, 교장, 교사등의
경험이 있는 사명을 가지신 분
- 제출 서류 : 이력서,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
- 제출 처 : hlee@gcjc.org
- 문의 전화 : T. (213)749-4500
- 담당 자 : 이미정 총무 위원

G 주님의영광교회 학교설립 위원회

• 교육칼럼

십대 자녀 바로 세우기(1)

십대 자녀를 둔 부모나, 자녀가 성장하여 성인이 된 부모는 십대 자녀를 사랑하고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 청소년이 무서워서 피한다고도 한다. 어떤 청소년은 교사와 동급생을 폭행하고, 살인까지 범하고, 성생활 비디옌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마약도 복용하고, 경찰서 신세를 지기도 한다.

이곳 한인 타운내에서는 위와 같이 큰 실수를 범하지는 않더라도, 장래에 대한 큰 소망이 없어서 방황하는 학생, 공부에 재미를 느끼지 못해 하루하루를 지루하게 보내는 학생,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학생, 부모와 자주 다투거나 아예 대화를 단절한 학생, 우루루 물러다니며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청소년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 십대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런 모습들을 목격할 때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런 청소년들을 키우는 부모, 특히 문제가 심각하거나 부모와 마찰이 심한 십대 자녀를 둔 부모는, "내가 우리 아이를 잘 못 키우고 있는 건가? 내가 부모로서 무슨 실수를 범한 건 아닌가?"라고 근심해 한다.

이런 질문은 분명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던지는 질문이고, 모든 부모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독자 중 이런 생각이 든다면 결코 이상한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일이 아니다.

십대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면 우선 청소년에 대해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 처한 현실을 찾아 보는 것이 현명하다.

시대와 문화, 언어와 인종을 초월해 십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특성을 갖고있다. 첫째,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한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십대 자녀는 어렸을 때와 같이 부모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한다.

개리 챔만 박사는 그 이유가 산업화(industrialization)라고 말한다. 농업이 주업이었던 1800년대와 달리,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집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고, 돈을 벌며 독립하던 십대의 삶이 19세기 말에 시작되어 지금

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1940년대부터 전기와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와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같은 기기로 인해 사회와 생활의 기반이 급변했고, 미국의 경우 청소년은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둘째, 독립심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다. 청소년은 자신의 정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기 시작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저 누구의 자녀, 누구의 형, 동생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장래, 변화하는 사회 가운데 나의 위치와 정체는 무엇인가? 청소년은 이러한 질문을 갖고 있기에 혼란스러워 하며 불안해 한다.

이 두가지, 독립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은 영원불멸한 청소년의 욕망이요 과제라 할 수 있다. 독자 중 자신이 청소년이었을 때를 상기해 보기 바란다. 분명 방금 설명한 독립심과 정체성을 자신도 경험했음을 인정할 것이다.

부모로부터 거리를 두며 자신들만의 음악, 춤, 복장, 문화 등을 추구하는 십대. 이들을 잘 이해해야지만 부모가 낙심치 않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담교회' 담임목사

좋은 생각 성령의 생각

"좋은 생각을 하자. 성령의 생각을 하자."

인생은 생각의 결과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난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것이다. 텔레비전 채널을 틀면 그 채널이 나오듯이 생각의 채널을 틀면 생각의 화면이 나온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진다. 좋은 생각은 좋은 것을 끌어 당기고 나쁜 생각은 나쁜 것을 끌어 당긴다. 마음 속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 2016년도에는 가장 좋은 생각으로 살자. 축복된 생각을 하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몇 번 시도해보지만 처음에 잠깐은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잘 안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그냥 편하게 살려고만 한다.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영교회

우리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고 또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흘러간다.

인생의 가장 좋은 생각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시다.(눅11:13)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활하신 후 "...숨을 내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요20:22)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롬8:6) 성령의 생각이 우리 인생을 앞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생각이다. 성령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 성령을 좇아 가면 성령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을 생각한다는 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먼저 하고 따라가지만 믿음의 세계는 먼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생각보다 믿음이 앞선다.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인간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새해에는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큰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자.

서로 믿을 수 없는 세상

얼마 전 자동차에 있던 작은 상처들 때문에 동네 한 바디샷에 들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큰 소리가 났다. 연세가 칠십되어 보이는 분이 젊은 여성에게 큰 소리로 "어떻게 너를 믿을 수 있냐?"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민망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영겨주춤 서 있었다.

그러다 금방 무슨 사연인지 알게 되었다. 요는 그 할아버지께서 젊은 여성의 차를 뒤에서 받아, 같이 바디샷에 왔는데 누가 어떻게 돈을 지불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어 큰 소리가 오셨던 것이다.

그 여자는 자신이 먼저 비용을 지불하겠으니 수리가 끝나면 그 액수만큼 자기에게 주면 된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 문제는 꼭 현금으로 지불해 달라고 한 데서 생겼다.

그 때부터 할아버지께서 "너를 어떻게 믿고 현금을 주냐? 체크로 주겠다"고 하며 다툼이 생겼다.

한 쪽은 상대방의 체크를 못 믿겠다는 말이고, 다른 한 쪽은 믿을 수 없으니 현금으로는 지불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바디샷 주인과 나는 계속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해 했다. 그 후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잘



김성민 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모르지만, 그날 그 바디샷을 떠나면서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았다. 이 모두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다투며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서로 다투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모두 좋은 사람들 같아 보였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이

다.(마가복음 12장 33절)"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앞 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맛을 내라는 뜻이다. 소금의 맛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빛이 되라고 하셨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둠을 물리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세상을 비추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작은 촛불이 넓은 방을 비추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의 작은 빛과 많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행복한 교회의 불꽃이 온 동네를 비추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나님은 해결책이 없는 이 세상에 빛으로 또 소금으로 그 해결의 길을 보이려고 하심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여 그 은혜가 세상으로 넘쳐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P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배와도 같은 '이웃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

11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12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여호수아14:11-12)

◆ 국보디자인 회장 권송성 집사

권송성 집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이 시대의 '갈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다.

모두가 기피하는 가장 험한 산지, 가나안의 최대 용사인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 그런 헤브론 땅을 향해 85세의 갈렘은 담대히 외치며 나아갔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헤브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일런지도 모른다. 악과 탐욕으로 점철된 세상. 내 것만 있고 네 것은 없는 세상. 이런 험한 산지에서 권 집사는 새벽마다 부르짖는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랑과 나눔'의 섬김을 예배드리듯 살아내며 조용히 삶의 일기장을 빼곡이 메꿔 나가고 있다. 그의 나이 올해로 벌써 76세다.

◆ 행복한 이름 권 집사

한국을 대표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 업체인 국보디자인 회장, 전 백강건설 회장, 전 성원건설 고문, 전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고문,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아태재단 운영위원 등 권 집사에게는 수많은 직함들이 따라 다닌다. 이름 석자보다도 직함 명이 더 유명한 사람은 권 집사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세상이 부러워할만한 그 수많은 직함에도 불구하고 숨은보화를 애지중지하듯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직함은 산성교회 집사다. 그는 권 집사로 불릴 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만이 그를 세상사는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 예배와도 같은 이웃사랑 실천

이러한 그의 신실함은 그의 예배와도 같은 '이웃 사랑과 섬김'의 실천적 삶에서 잘 나타난다.

권 집사는 고종황녀 이문용의 양아들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분을 돕다가 그의 양아들이 되었다. 그분은 양아들이 된 권 집사를 품 안의 자식 대하듯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 주었고 "항시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하셨다.

권 집사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다. 그것이 권 집사에게는 양부모를 향한 가장 큰 효(孝)의 실천인 것이다.

사람들은 권 집사를 향하여 기부천사라고 부른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힘닿는 데까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이웃 사랑과 섬김의 실천적 삶을 살고 있다.

소년소녀 가장돕기, 불우이웃돕기 등 권 집사의 숨은 선행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심지어는 언론을 통해 접하는 크고 작은 이웃돕기에도 솔선수범이다.

특히 2015년 가을,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하러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故) 정연승 상사의 유족을 위로하고 도우면서 그 유가족과 어린 자녀들이 희망을 잃지않고 꾀꿍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운 일은 사회의 큰 귀감이 되며 여전히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회사의 주인은 사원이라는 권 집사의 철저한 기업정신은 회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성과 좋은 사원들에게는 더 잘 하라는 격려를,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위로의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국보디자인은 한국내 인테리어 업계 최고 상장 기업의 위치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물론 교회 내에서도 그의 이웃보살핌은 현재진행형이다. 가장 어려운 10명에게 소리소문 없이 돕는 일 또한 그의 커다란 기쁨이다.

◆ 국가가 없으면 국민도 없어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성공 위한 성금 천만원 기탁, 2002년 경의선 철로 연결공사 남북협력 기금 통일부에 천만원 쾌척,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돕기 성금, 2013년 서북도서 수호위해 희생당한 장병 돕기 해병대예의 천만원 기탁 및 사후 안구기증 등 권 집사는 평생을 사회봉사에 헌신하며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국가사랑도 남다르다. 국가가 없으면 국민도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소년소녀 가장돕기, 불우이웃돕기 등도 결국은 나라사랑이다. 국민이 건강해야 국가도 건강하기 때문이다.

◆ 오른 손 하는 일 하나님만 알아

권 집사가 섬기고 있는 산성교회는 4년 전에 신축한 건물이다. 새로운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기쁨에 감사할 뿐인 권 집사는 약 2천여 석에 이르는 의자를 헌납했다. 전자울겐도 헌납했다.

의자는 개인능력으로 헌납했지만, 전자울겐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 명이 합심으로 헌납했다. 예상보다 3배나 더 큰 금액의 의자 헌납은 하나님의 은혜로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었으나 전자울겐까지는 무리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쭈었다. 그랬더니 그동안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던 지인들과 함께 헌납하는 지혜를 주셨다. 그들

도 나의 일처럼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기 시작했다. 많게는 천만원부터 적게는 백만원까지 본인의 감동대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같은 일도 동역할 때 더 감동이나 축복이 배나 더 한다는 사실을 경험케 하셨다.

그리고 입당식 전날, 권 집사는 고무장갑을 낀 채 깨끗한 물을 가득 담은 양동이를 나르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그 많은 의자를 혼자 모두 정성스럽게 닦았다.

강대상 밑 맨 앞자리부터 하나하나 일일이 닦아내려 가며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는 사람마다 예수 잘 믿고 큰 축복을 받게 해 주소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맑은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마음만은 그보다 더 기쁠 수는 없었다.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감동의 눈물만이 앞을 가릴뿐이다.

그리고 2층 마지막 두 자리만을 남겨놓고 있을 때, 맨 처음으로 흔쾌히 올건 헌납에 천만원을 헌금해준 정 장로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동안 노심초사 기다려왔던 사업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나타내셨다.

◆ 국경도 초월하는 사랑나눔

권 집사에게 있어서 2016년 1월은 아주 특별한 달이다.

그동안 권 집사가 펼쳐온 사랑의 온정은 본국에서뿐만 아니라 이곳 미국 엘에이 교민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권 집사는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와 9.11 테러 시에도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보여줬다. 회갑 때 들어온 축의금 전액을 미 정부에 보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아낌없이 도와주었던 미국에 대한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함이었다. 그 감사의 뜻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민주당을 통해 권 집사에게 감사장을 전해왔다.

그리고 이달, 남가주호남양우회에서는 권 집사에게 '자랑스러운 호남인상'을 주었다. 전라남도 정읍이 고향인 기부천사 권 집사는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고향사람이기 때문이다.

Los Angeles 시에서는 그에게 명예 시민권을 수여했다.

흑인에게만이 아닌 온 세계의 인권과 정의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국경일)에는 LA지역 킹덤 퍼레이드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받아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를 통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기리는 제31회 킹덤 퍼레이드'에 초청된 권송성 집사.

해 LA 지역 현직 미국 연방하원의원들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도 권 집사의 조국사랑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는 지난날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목에 걸치고 국가와 세계의 안녕을 위해 기도했던 태극기를 이날도 여지없이 가슴에 품고 단상에 섰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손에 손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는 감격의 시간을 나누게 했다. 피부색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되는 순간, 북한 동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 달되는 순간이었다.

◆ 응답하시는 하나님

권 집사는 17세 때 폐결핵으로 생사를 넘나들었다. 그때 그는 만약 살려 주시지만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서원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그는 기적처럼 살아났다. 그때 하나님과 한 약속을 그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다.

그런 그의 신실함을 보고 그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거의 응답하신다. 그가 지금도 매일 빠짐없이 가족은 물론, 그와 맺은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이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곧 권 집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이기 때문이다.

◆ 축복받게 사는 자 축복받아

축복받는 자는 그 삶이 축복받게 산다. 권 집사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시 나누며 사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 땅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 축복받은 만년 집사

작은 사랑을 베풀 것뿐인데

남치는 큰 사랑으로 축복해 주신다며 겸손해 하는 권 집사는 만년 집사다. 교회의 권유를 더 이상 뿌리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가 장로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늘 겸손하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인 것이다.

40일 특별새벽기도라도 하게 되면 주일예배드리듯 단정한 옷차림의 경건함을 잃지 않는 것도 권 집사에게는 놓칠 수 없는 축복이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설레임때문이다.

그런 그도 손녀가 학생회장이 되고 교육감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듯 뽕뽕이 기뻐하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는다.

고희(古稀)를 훌쩍넘겨 희수(喜壽)를 바라보는 권 집사는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에 합한 이 시대의 진정한 갈렘임에 틀림없다. 그는 평생 온전히 주 하나님 한 분의 뜻인 이웃 사랑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산 사람이기 때문이다.

권 집사는 마치 갈렘이 그랬었던 것처럼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여전한 영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 살고 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웃사랑 섬김의 마음을 한결같이 실천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주위에는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동역하게 된다. 그리고 이웃 사랑과 나눔의 실천은 그 시작이고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

권송성 집사의 삶은 험한 헤브론 산지와도 같은 이 시대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어떠한지 함을 보여주는 귀한 시대상이다.

이영인 기자



교회·민·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정중학교 / 토요새벽·17와버몬트코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단·세력학자며, 이단·가정을 치료하여,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 983-9024

연재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장태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주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한천영 담임목사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엘리아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한기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부부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la.org

서건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함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정오 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정우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김경범** 담임목사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산타모니카찬송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신현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조인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복합인 모임 오전 11:00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804, Los Angeles, CA 90020
T. (310) 404-6219

김영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서와 월토 옆) T. (213) 380-0071

김요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믿,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정장수 담임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제된 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미디어, 임산부 매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와 사랑함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효를 소·친 초 정신의 효를, 바른교회관의 효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박부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 (213) 389-0937, (213) 389-0938 F. (323) 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WEA 에반젤리칼센터 이전 기념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WEA

“WEA, 美 뉴욕시 인근으로 본부 이전” 지도자 교류·양성 구심점 될 것

세계복음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이하 WEA)이 최근 본부를 뉴욕시 근교 도버로 이전, 15일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과 주·시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감사예배와 표지석 제막식, 테이프 커팅, 저녁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WEA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뉴욕주 빙엄턴 소재 에반젤리칼센터를 본부로 사용해 왔었다. 뉴욕시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WEA의 새 에반젤리칼센터는 채플, 기숙사, 사무실동, 강의실동, 강당, 식당 등 총 8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 6억 회원들을 섬기는

WEA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WEA의 새 에반젤리칼센터는 이웃한 올리벳 대학의 시설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WEA 연수 및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선교를 지원한다.

이전 기념 행사 참석자들은 WEA의 새 센터 입주를 크게 환영했다. WEA 총무 에프레임 텐데로 목사는 감사예배 설교를 통해 “이 센터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면서 “이를 통해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세계에 영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동전 속 ‘하나님을 믿는다’” 캘리포니아 주 무신론자들… 삭제 요구 소송

캘리포니아 주의 무신론자들이 동전에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문구가 종교자유회복법(RFRA,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뉴도우는 11일 의회와 재무부를 상대로 오하이오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이 문구는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 그리고 반무신론적 성향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계속 사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뉴도우는 지난 2010년 미국의 제9항 소법원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미국 동전과 지폐에 사용된 문구의 합헌성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을 뿐 아니라, 국기에 대한 맹세에 들어가는 “하나님 아래서”라는 단어 또한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도우는 “동전과 지폐에 이 문구를 넣는 것은 종교자유회복법에 위배되며,

온전히 유일신 종교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피고인들은 원고가 무신론적(그리고 이와 비슷한) 신념들을 갖는 데 있어서 많은 괴로움을 안겼다. 원고들이 동전과 지폐를 사용할 때, 그 안에 담긴 종교적인 메시지를 참아야 하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뉴도우는 자신의 블로그에도 “지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문구 삽입을 강요하는 정부는 어디에도 분명히 없다. 우리는 이 문구가 사용되기 전 75년간도 잘 살아 왔다. 그리고 이 문구가 모든 동전과 지폐에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전 102년 동안도 계속 좋았다. 이와 비슷하게 대다수의 국가들은 돈에 종교적인 장황함을 새겨넣지 않고도 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비슷한 소송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동성혼 합법화는 아이들에게 재앙” 美가족연구위원장… 부모는 좋고 보모는 늘어나



토니 퍼킨스 위원장 ©크리스천포스트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위원장은 “미국 가정의 강화를 위한 협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작년 12월이 되어서야 캔터키주 매트 베빈 신임 주지사는 그녀가 바라던 협상안을 받아들였다.”

12일 크리스천포스트에 의하면, 보수적 활동가로 유명한 퍼킨스 회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앞두고 정부의 가정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또한 작년 6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대법원의 판결은 아이들에게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퍼킨스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결혼을 위하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가치들도 존중해 왔다. 특히 같은 성(gender)을 가진 성인들이 아빠와 엄마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조적인 메시지들은 실망스러움을 넘어선다. 미 전역의 아이들에게 이는 재앙이다. 이로 인해 어머니와 아버지가 줄고, 성 구별 없는 보모가 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의 아이들은 훨씬 더 잘 대우받아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아

빠가 필요하다. 우리는 가정의 혼란과 폭력 등, 동성결혼 캠페인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 가정들을 재동력화해야 하는 이유다. 소수자들을 위한 피임, 낙태 수용, 결혼 재정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가정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캔터키주 김 데이비스 서기는 작년에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되기도 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과 같은 종교인들을 위한 협상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작년 12월이 되어서야 캔터키주 매트 베빈 신임 주지사는 그녀가 바라던 협상안을 받아들였다.

미국인들의 종교적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제안 중 하나로 퍼킨스 위원장은 ‘수정헌법 제1조 보호법’ 통과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동성결혼을 지키려는 개인이나 교회, 단체가 동성결혼 문제로 인해 정부에게서 차별을 받거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린제이 그레함(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을 표했다.

퍼킨스 위원장은 “이 수정법안은 가장 필수적인 첫 단계로서, 헌법적 원칙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헌법적 원칙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수정 헌법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만들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미국 하원 앞에서 기도하는 무슬림들. 무슬림들은 또한 의회 내에서 기도할 수 있으며, 미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위해 알라에게 개회 기도를 하기도 한다. ©maozisrael

“2040년, 美 제2종교는 이슬람될 것”

빠른 증가세에 한 곳에 몰려살아... 정부는 무슬림 인구 통계조차 없어

현재 미국 내 영향력 있는 민족 집단을 꼽으라면 유대인들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2040년, 무슬림들이 유대인보다 인구가 더 많아져 미국 내 제2의 종교가 될 것이라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美 퓨리서치센터 조사를 인용, 현재 미국에 있는 330만 명의 무슬림들이 2050년에는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무슬림들은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로, 미국 내 현재 570만 명 가량 있는 유대인들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빨라서 2040년에는 인구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더불어 퓨리서치센터는 2010-2015년 무슬림들이 미국으로 많이 유입되어 들어왔으며, 이들의 평균 출생율도 미국 평균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 무슬림들은 모든 주에 골고루 사는 것이 아니라, 뉴저지와 같은 특정 주에 주별 평균보다 2-3배 가량 높은 비율로 몰려사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퓨리서치센터는 미국 사회에서 무슬림들이 현재 주목 받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미국에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밝혔다. 더불어

미국 인구조사국이 종교에 대해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무슬림 인구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위스콘신주의 그린베이에 위치한 잔디깎기·제설기 생산업체 에리언스가 지난 14일 무슬림 직원들에게 식사 시간에만 기도하라는 새 방침을 내리자 무슬림 직원 53명 중 10명만 남고 나머지 43명은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고 18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가 보도했다.

美 최대 무슬림단체 이슬람관계위원회(CAIR)는 “에리언스가 기도에 따른 생산성 악화 자료를 증거로 내밀지 못한다면 새 지침은 모든 직원의 합리적인 종교활동 보장을 적시한 연방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콜로라도 주에 위치한 정육 포장업체인 카길도 무슬림 노동자 150여 명을 업무 중 기도 문제로 집단 해고한 바 있다.

이에 CAIR은 한달 사이에 두 곳에서 무슬림의 기도를 제한한 일이 발생한 것이 우연은 아니며 미국의 생산 현장에서 이슬람 배척 분위기가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종파마다 다른 부활절 날짜 ‘통일’ 논의”

성공회·가톨릭·쿵트교 등 참여



영국 성공회 저스틴 웰비 대주교.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는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 이집트 쿵트교 타와드로스 2세 교황 등 전 세계 기독교 대표들과 통

일된 부활절 날짜 지정에 대해 최근 논의했다고 한다. 이들은 5-10년 내에 4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주일로 부활절 날짜를 통일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활절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기의 14번째 날짜 이후 첫 번째 주일로 결정됐으나, 러시아정교회나 동방정교회 등은 다른 날짜로 지키고 있다. 웰비 대주교는 “부활절 날짜를 통일하려는 노력은 10세기 이전부터 있었다”며 “뜻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같은 날 부활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그 날짜를 바꿀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종파마다 다른 부활절 날짜를 통일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영국 가디언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스틴 웰비 영국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는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 이집트 쿵트교 타와드로스 2세 교황 등 전 세계 기독교 대표들과 통

“카메룬 모스크 자폭테러 또 일어나”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 연계 세력 소행 추정

카메룬에서 연이어 모스크 자폭테러가 일어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아침 나이지리아와 국경을 맞댄 카메룬 북쪽 끝에 있는 응게체베 지역의 모스크(이슬람 사원)에서 아침 기도시간 테러가 발생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현장 주민은 “이번 테러로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사건은 아침 6시경 발생했으며, 한 소년이 걸어서 마을에 도착했는데, 한 주민이 이상한 징후가 느껴져 말을 걸려 했지만 소년은 곧장 모스크로 달려가 몸에 착용하고 있던 폭탄을 터뜨렸다고 이 지역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지난 13일(현지시간)에는 아프리카 카메룬 북부 지역에 있는 한 모스크에서 자폭테러가 발생, 최소 1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카메룬 당국은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 연계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카메룬은 현재 나이지리아와 니제르, 차드 등과 함께 지역 동맹군을 구성, 보코하람을 격퇴하기 위한 싸움에 동참하고 있다. 때문에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보코하람은 인접 카메룬 국경지역에서 자주 자폭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독복음주의 교단 동성결혼 허용 논란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복음주의 교단이 동성결혼을 허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세계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260만 명(교단측 주장)의 성도와 719개의 교회를 거느린 REK(Rheinische Evangelische Kirche, Protestant State Church in Western Germany)는 지난주 총회를 갖고 “동성결혼 커플을 축복하고 이성결혼

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변경된 교단 정책을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고 한다.

다만 교단은 ‘목회자가 동성결혼 주례를 반대하는 것도 허용했으며, 이 경우 동성결혼 커플은 다른 목회자에게서 주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ECBB(Evangelical Church of Berlin-Brandenburg)도 오는 4월 동성결혼 허용할 것으로 예상돼, 이와 관련된 논란은 더욱 장기화·가속화될 전망이다.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김성민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 872-2405 교회 /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이준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기독 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사우스베이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 365-9188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믿음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church.com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세상의 소금과 빛될 예수의 제자 키우는 교회 되어야

■ **신년대담** 2016년 한인교회가 집중해야 할 이슈를 논하다

2016년 미주 한인교회에도 새해가 밝아왔다. 교회들은 새해를 맞이해 다양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며 부흥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을 뒤흔든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및 각종 반기독교적 사회 이슈들과 함께 커뮤니티 내에서 교회의 권위 실추, 지속적인 교세 감소 등 현 지표는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교회가 어떤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 가야

2016년이 한인교회 갱신의 한 해로 평가될 수 있을까? 남가주 지역의 대표적인 기독교계 지도자 4명을 초청해 한인교회가 2016년에 집중해야 할 이슈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1명이 자신이 생각하는 주제를 내어놓으면 3명이 그에 대해 첨언, 부연하는 식으로 대담이 진행되었다. 고승희 목사, 민중기 목사, 이상명 목사, 박기호 목사가 대담에 참여했고 김준형 기자가 대담을 진행, 정리했다.

발제 고승희 목사 2016년 한인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대책을 세우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들이 주민발의안도 내어보고 역량을 모아 보았지만, 더욱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성애는 강 건너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가정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 삼는 성적 타락은 노아의 홍수를 불러왔다. 공립학교 내의 동성애 교육이 문제가 되지만 사립학교들도 동성애 교육을 하지 않으면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그 때문에, 학교 운영을 위해서라도 동성애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좀 더 체감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앞으로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면세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다. 헌금을 교회의 수입으로 잡아서 세금을 매길 수도 있다. 엄청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하는 교회가 생겨난다.

이런 사태를 대비해 교회들이 지금부터라도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 교회 규모나 조직을 소형화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적 이슈

에 관해 젊은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므로 교회가 바른 교육을 감당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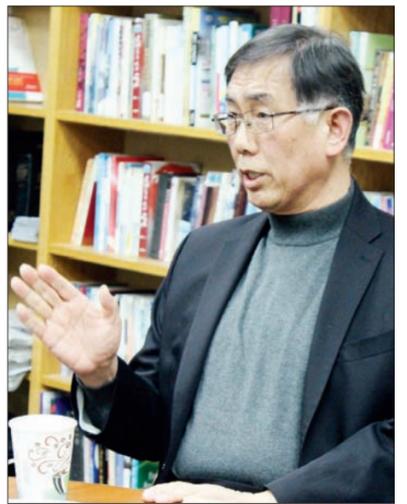
민중기 목사 동성애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는 현실의 문제가 됐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나 교회 사용 등에 대한 정관과 규정을 만들었다. 교인 가운데에도 동성애 성향을 지닌 분이 있고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도 있다. 동성애 이슈와 교회가 부딪힐 때 교회 자체를 보호할 방법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이상명 목사 동성애 이슈 자체가 큰 영향력을 지닌다기보다 이것은 복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바늘의 끝과 같다 할 수 있다. 동성애를 수용하면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해체되면 교회가 해체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단순한 인권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와해되고 복음의 능력을 잃게 되는 문제다. 현 교회의 대

“동성애 문제, 교회 존립에 큰 타격될 것 자녀 세대에게 바른 가치관 심어야”

응은 단선적이다.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통용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를 배타적이라 보고 분리되어 버린다. 방법과 전략을 다차원적으로 구상해야 한다. 공동보조와 의학적 차원에서 정보를 주고 동성결혼이 어떻게 건설한 공동체를 와해시키지는지를 집중 연구해서 알리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다. 또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있고 부모 세대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문제를 공개적으로 개 교회가 다루기 쉽지 않다. 교회들이 연합해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설적인 방법을 보여주어야 한다.

박기호 목사 리처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논하면서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를 언급했다. 오늘날 미국 문화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제 교회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동성애는 문화’라며 수용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잠잠하기도 한다. 우리 한인교회는 성경이 분명히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경영정보학 박사)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가르쳐야 한다. 복음이 받아들이는 범위 내에서는 순응할 수 있지만, 정면 위배되는 일에 대해서는 고난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 잘못된 지도자를 선출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하며 정책 결정이나 입안에 참여해 문화를 변혁시켜야 한다.



민중기 목사(충현선교교회, 기독교윤리학 박사)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 실추 세상과 소통하며 기독교 윤리 회복해야”

많지만, 대표적인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실책이 드러나면서 신뢰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의 가치나 권위를 교회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 같다. 교회가 커지면서 권력화되고 교회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등 사유화했다. 교회가 자충수를 둔 것이다.

이에 비하면 오히려 사회가 훨씬 윤리적이다. 요즘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 공개도 해야 하는데 교회는 너무 안주해 왔다. 우리가 리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교회 윤리의 기준이 사회보다 낮았다. 권력을 갖거나 부유해지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교회를 보며 세상도 쓴웃음을 짓는다.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이민교회에도 이런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성숙의 문제를 생각해야 할 때다. 교회가 ‘교회만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천국’을 향해 세상과 소통하며 자라야 한다.

박기호 목사 우리가 설교는 잘하고 바른 말

은 잘했지만 삶이나 행동이 우리 가르침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저는 성숙의 문제를 ‘제자도’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버려지고 밭이다. 제자도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우리도 희생하면,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3:16)” 말씀이 바로 제자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더 받으려 하고 희생하지 않았기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서면 회복될 수 있다.

이상명 목사 빨리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 현재 한국교회의 목회 방향은 성장주의, 성직주의, 교회 권력화다. 일반 성도들이 직업을 통

해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교회 안과 밖에서 다르다.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안팎에서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 안에 성장주의나 자본주의 논리가 들어온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교회가 커지면 그것이 곧 복음이라 착각한다. 큰 교회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큰 일은 아니다. 작은 교회는 많은 일을 할 수 없지 몰라도 큰 일은 할 수 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 목회자들도 자기 세계에 갇히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밖으로 유통할 것인지, 사회와 어떻게 접촉점을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 시작점은 자기 자신부터 제자도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고승희 목사 우리 한인 교인들에게는 열심이 있다. 다만 어떻게 분출시킬 것인가에 문제가 있다. 아브라함의 경우, 애굽에 가서 아내를 팔아먹는다. 그리고 세상을 깨울 아브라함이 세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는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로 정리된다. 한국교회들과 달리 이민교회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는 성도들이

www.marhlaw.com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야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인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믿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辯護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침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實力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로움을 갖춘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였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精誠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인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責任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별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기독일보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야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인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믿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인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믿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tel. 213.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교회는 너무 열심히 다니는데 삶은 엉망이라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목숨을 거는데 직장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조차도 통하지 않는다. 이민사회에서 충족되지 않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에 온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울 때 추천서를 직장 동료, 자녀로부터 받아오게 한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은혜 받고 그것을 평가받는 곳은 세상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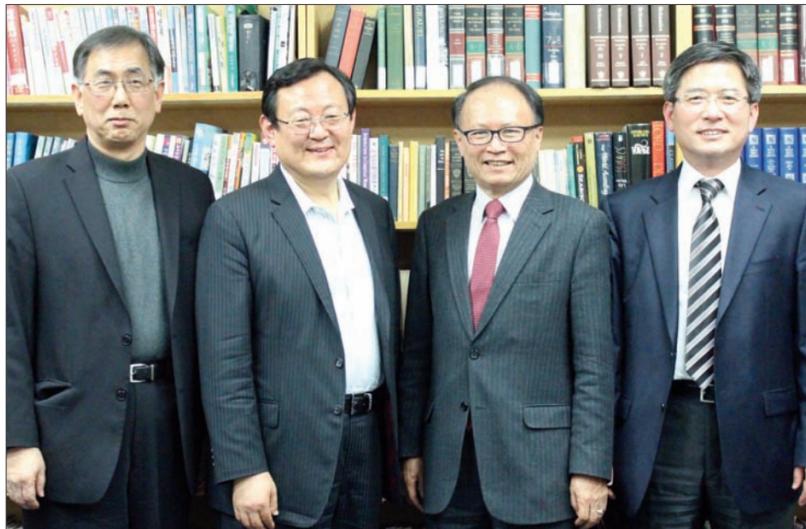
박기호 목사 지금 나누는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교회 안에서는 헌신적인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롬 12:1),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민중기 목사 제가 섬기는 교회도 제자훈련을 하지만 결국 제자훈련의 결론이 교회 순장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제자훈련의 내용에

교회 밖 삶에 관한 것을 추가했다. 교회 내수용 리더는, 교회에서 주일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나머지 6일간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 직업을 사역 현장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상명 목사 제자훈련은 결국 '담음의 신앙' 교육이다.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다. 말과 글로는 한계가 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믿음을 삶으로 보여 주었고 사람들은 그 삶을 존경해서 따라갔다. 하나님을 담은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담은 사도와 제자, 성도였다. 이런 담음의 구조를 이민 1세대인 우리가 2세, 3세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고승희 목사 제자훈련은 단어 그대로 스승을 담은 제자를 만드는 훈련이다.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며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다.(마 28:19-20) 주님이 하신 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옮기는 일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고승희, 민중기, 박기호, 이상명 목사가 본지 주최 2016년 신년 대담에 참여했다. 이들은 공식 대담을 마친 후 미주 한인교회의 선교 전략 개발과 협력, 선교사 훈련 및 지원 등에 관해서도 포괄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이민 감소와 고령화 차세대 없는 한인교회 어떻게 되나?”

발제 이상명 목사 저는 차세대 신앙 교육 문제를 짚고 싶다. 젊은 세대의 인식 시스템은 뇌 구조부터 우리와 현격한 차이가 있기에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근법부터 달라야 한다. 우선 요즘 젊은이들은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 간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이제 한인 인구는 줄어들고 오히려 역이민이 늘어난다. 교회는 고령화되고 신학생들도 줄어든다. 경제적으로도 위축되고 있기에 우리 세대에 차세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민 아니라 차세대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다.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회에 실증을 느낀다.

민중기 목사 우리 총현선교교회도 2세 목회와 1세 목회가 어떻게 동행하느냐가 큰 이슈였다. 그런데 2세 목회자가 헌신되었다면 문제

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어떤 목사들은 KM은 킬링 미니스트리(Killing Ministry)라고 하고 EM은 이지 미니스트리(Easy Ministry)라고 하지만 사실 목회자가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다.

우리 교회는 한 교회란 정체성 아래 KM과 EM이 행정적, 재정적으로 독립돼 있지만, KM은 EM을 통해서 교사들을 공급받고 EM이 잘 자라도록 재정과 건물을 지원한다. EM 목회자는 우리와 목회 철학을 공유할 뿐 아니라 저와 선교여행도 자주 하면서 친근해졌다. 또 KM과 EM을 연결해 주는 당회원이 있어서 오해 없이 잘 소통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투자만 했는데 이제는 EM이 장소 사용료도 내고 선교후원금도 낸다.

박기호 목사 차세대 교육 역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모델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를 해도 존경심이 없다면 그들은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우리가 본받을 만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 총장, 신약학 박사)

한 모델이 된다면 그들은 우리를 가까이하고 배우려 한다. 즉,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살면 차세대들이 배우려 하고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차세대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한다. 다른

복음을 철저히 거부하던 바울(갈1:8)도 상대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고전 9:19-23) 우리가 차세대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와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복음이다.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는 1세대에도 2세 캠퍼스 사역을 성공적으로 한다. 그는 때때로 한인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사랑으로 돌봐준다. 우리 자녀들이 맡은 영어를 써도 음식은 한국 스타일인데, 그런 사랑을 받고 나면 저절로 존경심이 생기고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다.

고승희 목사 차세대를 선교지로 보내는 것이 매우 좋은 훈련 방법이라 생각한다. 우리 교회의 어떤 형제는 가정의 어려움, 학교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지에 갔더니 그 지역에서는 '영어를 제일 잘하는 미국에서 오신 분'으로 대우받았다. 이 경험 후 그는 선교에 헌신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이 선교지에 가면 현재 자기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에 관계없이 그들보다는 낫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결단하게 되는 자녀들이 매우 많다.



박기호 목사(풀러신학교 교수, 선교학 박사)

발제 박기호 목사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차세대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차세대를 강조하다 은퇴세대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좀 쉬 때? 이제 진짜 일할 때 은퇴 세대를 교회 사역의 일꾼으로”

이제 곧 120세 시대가 열린다고 하며 사회 구성원도 15세 이하보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훨씬 많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 이런 은퇴자들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인생의 절반 가까이 되는 여생을 버리게 하지 말고 그들이 소망을 갖고 생산적인 사역을 하도록 교회가 신경 써야 한다. 그들을 대접받아야 할 노인보다 보기는 낫지만 남을 섬기는 사역자로 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운 경험도 있고, 세상을 살며 지혜를 깨우친 헌신된 노인들을 주일학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면 어떨까? 2016년 한인교회들이 차세대와 함께 노인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노인 목회를 잘 하면 교회도 성장될 수 있다.

민중기 목사 실제로 우리 교회 실버 사역은

최근 3배 이상 성장했다. 특히 살롬대학이라는 실버대학이 있는데 처음에는 20-30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200명이 등록해 있다. 그분들은 그저 시간이 남아서 소일하기 위해 오는 분들이 아니라 한방도 배우고 라인댄스도 배우면서 제2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 교회는 65세가 정년이기에 일단 그 나이가 되면 사무직에서 은퇴하지만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이 분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자기 물질을 사용해 해외로 나가고 그동안 전문인으로서 갖고 닦은 노하우로 선교한다.

고승희 목사 저는 은퇴자들의 주요사명 중 하나가 중보기도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는 원로목회자 1박2일 수련회를 매년 여는데 '리타이어(은퇴, retire)한 목사님들은 정말 리타이어(re-tire, 타이어를 교체함)하고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셔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행사를 섬기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돕는데 특히 나이있는 권사님들의 활약이 큰 것도 특징이다.

이제 우리 교회는 곧 교구 사역자들을 모두 개척 보내려 한다. 그리고 그 교구 사역자의 자리를 65세에서 75세가 된 은퇴 장로로 세운다. 노인 세대를 사역에 활용함과 동시에 교회 비용을 절감, 장차 발생할 수 있는 교회 면세 혜택 박탈 등에 대비해 유연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상명 목사 이제 연령 측정 기준도 달라졌다고 한다. 현재 나이에 곱하기 0.7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즘 70세는 과거 49세 정도의 체력과 젊음을 갖고 있다. 옛날 구전 문화 시대에는 한 마을의 촌장이 죽으면 도서관 한 개가 사라진 것과 같다고 했다. 노인 세대를 새로운 지식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면 이들은 은퇴 후에도 복음의 사역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 교회가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개발해 가야 할 것이다. <끝>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기독일보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문의 1-877-580-2424

사무소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기독교일보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ATS정회원후보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로 인가된 D.Miss.(선교학 박사)과정!!

학위과정

박사	선교학 박사 (D.Miss) 42학점
석사	목회학 석사 (M.Div) 105학점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69학점
	선교학 석사 (MA ICS) 48학점
	100% 온라인가능
학사	신학사 (BA)
	100%온라인가능

- 우수한 교수진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 저렴한 교육비
- HD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강의
- 전과정 유학생 SEVIS I-20 발급 (본교 및 LA)
- 미 연방정부 학비보조 지원 -그랜트 및 론
- 미 국방부 학비 지원(TA)
- GMU 학교 장학금 수여

엘에이 지역 입학 설명회(Open House)

날짜 : 1월 23일 (토) 오후 3시
 장소 : LA 한국교육원 강의실 (윌셔블러버드와 윌셔 플레이스)
 행사내용 : 학교 소개, 학위 및 전공과정 소개, 정부학자금 및 장학금소개, 유학생비자 소개, LA 연장 강의 소개, 참여자는 입학금 면제, 관심있는 모든 분 환영

Grace Mission University

2016년 봄학기 원서접수 마감 : 2016년 1월 31일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www.gm.edu
 English Track도 있음 (전과정을 영어로 강의)
 LA Extension Class도 가능 (49% 까지 강의 수강)

■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 이메일: admissions@gm.edu ■ 웹사이트 : www.gm.edu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에세이를 연재하며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저널리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소강석목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신앙, 역사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꽃씨 심는 남자

소강석 에세이집

“그는 거친 황야를 달려가는 들소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아성과 소망이 있다.”

- 이어령 교수 -

“목사, 시인, 애국자 등 그가 지닌 세 얼굴이
때로는 교차하고 때로는 번갈아 드러나면서
글 읽는 맛과 호소력을 더해준다.”

- 이선민 조선일보 기자 -

336면 / 14,000원

소강석 기념식 낭송시 모음집

평화의 꽃씨

을 열어주소서



251면 / 10,000원

한국교회 최초 기념 시집!
목회자들에게 기념예배 참고와 교회 대표기도를 하는 중직자들에게는 기도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영성과 감성의 시적 언어!
예배 인도자들이 꼭 한 번 읽어야 할 시집!

소강석 지음

전국 기독교 및 일반 서점 절찬리 판매!

● 한글인터넷주소 : www.qumran.co.kr ● 홈페이지 : www.qumran.co.kr ● 서울 중로구 이화장길 6 ● TEL : 747-1004(대)

서울 대학교 평창캠퍼스 미국 JCD 연구소 최고위 과정

제 1기 학생모집 [7주과정]

- 1차 : 2016년 1월 27일 ~ 1월 28일 (오전 10시~오후 2시)
세계 아가페 교회 교육관 (933 S. Lake St., L.A., CA 90006)
- 2차 : 2016년 2월 6일 ~ 3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오후 9시, 7주 과정)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1차 접수마감 : 2016년 1월 25일까지

- 대상 : 남가주 한인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평신도 CEO 과정
- 특전 : ① 수료증 증정 ② 서울대 내 JCD 연구소 동문회 참석
③ 고국 방문시 서울대 게스트 하우스 숙박 가능 ④ 미국 JCD 연구소 회원 가입 가능
- 강사 : 정창덕 박사, 김일겸 박사, 하서영 박사 외 2인

문의처 남가주 한인 목사회 수석 부회장 엘리야 김 목사 | 213-272-6031



정창덕 박사



김일겸 박사

■ 주관 : 남가주 한인 목사회(회장 엄규서 목사 213.820.9414) ■ 주최 :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 미주 총회(대표회장 류당열 목사 213.505.1947)
 ■ 후원 : 서울대 남가주 총 동창회(박혜옥 회장) / 고려대학교 남가주 교우회



분과별 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성경·과학·여론·헌법 동성에 부정해”

한동대 주최 ... '동성혼과 한국교회의 과제' 2차 학술발표회

‘동성혼과 한국교회의 과제’ 제2차 학술발표회가 18일 오후 서울 합정동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심리상담과 과학, 신학윤리와 미디어, 법률 등 분야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신학윤리 분과에서는 이재현 교수(한동대)가 ‘바울이 말하는 동성애와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장 24-27절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그는 “동성애는 같은 성을 가진 자들의 성적 결합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현상을 해석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며 “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한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문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장 24-27절”이라고 밝혔다.

과학 분과에서 발표한 유정철 교수(경희대 생물학과)는 ‘동성애에 관한 과학적 논쟁과 사회적 구성’을 제목으로 “동성애에 관한 과학적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한 것이라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므로 동성애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운 반면, 환경에 의한 것이라면 자신

의 통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으므로 강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유전적으로 이성애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강진구 교수(고신대)는 미디어 분과 ‘동성혼 시대를 향한 기독교 변증 영화의 전략적 이해’ 발표에서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고 동성애 영화가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은 ‘영화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학’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률 분과에서는 송인호 교수(한동대)가 ‘동성혼 허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이 외에 심리상담 분과에서 민성길 교수(연세대의대)가 ‘동성혼의 정신의학적 문제’, 신성만 교수(한동대)가 ‘행동중독적 관점으로 바라본 동성애’, 신학윤리 분과에서 송인규 박사(합동신대)가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비평’ 등 각 분야별 발표가 있었다. 이대용 기자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한국교회법학회 제16회 학술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교회법학회 제공

“종교인 과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 종교인 소득과세, 그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가 “종교인 과세”라는 무거운 주제를 들고 제 16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종교인 소득과세, 그 내용과 문제점”(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이란 주제로 18일 오후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발제한 법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종교인 과세 찬성의 입장을 견지했다.

먼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이냐?”란 제목으로 발표한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중앙대학교 대학교회 목사)는 제목에 등장하는 예수님 시대 세금은 지금 시대의 세금 성격과 매우 달랐다고 지적하고, “당시 세금은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피지배민족과 백성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지만, 지금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그 대부분이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서 “목회자들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만큼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이야기 했다.

서헌제 교수는 “목사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성직이므로 세금을 낼 수 없다든지 교인들이 세금을 부담한 후에 한 헌금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같은 성직자들인데 왜 천주교 신부들은 세금을 내는데 기독교 목사들은 세금을 낼 수 없는지, 또 사랑의 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시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목회자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는데 이

들이 하는 업무는 성직이 아니라서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성직’논리로 논전혀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비교”를 주제로 발표한 이석규 세무사(삼도세무법인)도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에서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소득과세의 법제화는 종교인소득을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큰 틀 안에 들어 놓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말하고,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살펴보고 재정비하고,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바로 바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 세무사는 “종교인소득 과세 제도가 종교인으로 하여금 ‘가이사의 법에 따라 계산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 돌려 줌’으로 인하여, 가이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부정적 편견을 불식하는데 일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사에서는 두 사람의 발표 외에도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박종언 목사(한국교회연합 인권위원장), 정대진 세무사(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법 위원회 부회장, 법학박사), 김기명 세무사(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 자문위원)가 찬반 등의 입장에서 토론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수민 기자

O.C. /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모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형한문대학교 주일 2: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저지문리사역원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일침례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다들날) 7:0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인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성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리침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망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 예배: 매일 4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침례예배 오후 2:3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이는 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bl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무용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귀암 담임목사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일양예배 7:3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EM 주일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중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일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 예배 토요일 새벽 6: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플러트 채플 Fullerton Chapel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5:3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1부예배 오전 9:00 P-janda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 글락과, 에프티스쿨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엘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C학원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엘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예배 오후 8:00 흥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침례부 오후 1:30

흥성준 담임목사

엘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전 1:30(한인 영아)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영아) 청년부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FAM에배 오전 11:30(영아)

박경호 담임목사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들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5(Worship Center)
T.(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임영민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예배 오전 05: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섬김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조원재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opm Duplex
- Dual Scan ADF 80opm Simplex
- Emperor Drive!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Simitri with Bizness *Optional : Fax & Finisher

●이슬람 바로 알기

무슬림은 어떤 행동의 의무를 갖는가?

무슬림에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면 “인샬라(Inshallah)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말의 아랍어 의미는 “알라의 뜻이라면(if God’s will)”이다. 이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교리와 다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알라의 심판을 받는다고 믿는다. 따라서 무슬림에게 이슬람의 교리에서 정해 놓은 행함을 따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신앙고백(Shahada)

이슬람 신자들은 “알라 이외에 어떤 신(神)도 존재하지 않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La illaha illa Allah Muhammad rasul Allah, 라일 엘라 알라 무함마드 라술 알라)라고 신앙고백한다. 알라(Allah)만을 유일한 신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슬림이 되는 중요한 전제다.

이것은 이슬람 신학의 근본이며, 무슬림들의 도덕적 규범이기도 하다.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라는 말은, 그가 전한 모든 것을 확신하고, 그가 금기하거나 경고한 것은 피하고, 그가 제정한 규범을 따라서 알라를 경배한다는 뜻이다. 또한 알라가 명령한 경배의식, 법과 규범의 제정, 윤리와 도덕, 가족체계, 법 제정, 금기 등 제반사항에 대한 교리 적용도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 왜냐하면 무함마드가 알라의 법을 인간에게 전한 사도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신앙고백에서 “알라 외에 신이 없다”는 고백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인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철저히 부정하는 대전제 때문이다.

꾸란에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알라와 동등한 자리에 놓고 섬긴다”는 죄목을 거론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사악한 죄, 즉 쉬르크(Shirk)라는 것이다. ‘쉬르크(Shirk)’란 어떤 것을 알라와 대등하게 두고 경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기도(Salat)

기도는 이슬람을 지탱하고 있는 두 번째 기둥이다. 꾸란은 하루에 세 번, 즉 아침·점심·저녁에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무함마드가 하루에 다섯 번씩 기

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사망한 이후에 하루 다섯 번 기도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의무적인 기도 시간은 다음과 같다. 해가 뜨기 바로 전 새벽(Fajr), 해가 뜨고 정오가 되기 전(Zuhr), 오후 중반(Asr), 해가 지고 나서 바로(Magrib), 일몰 후(Isha). 무함마드는 처음에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으나, A.D 624년에 그 방향을 메카의 카바 신전으로 바꾸었다.

기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가능하다. 무슬림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개인용 매트를 깔고 기도한다.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에서 나침반으로 메카를 향하여 자리를 잡고 기도한다. 기도하기 전에는 세정의식(wudu)을 한다. 얼굴을 씻고, 특히 입·코·귀와 같은 구멍과 손부터 발까지, 그리고 발부터 발목까지 씻어야 한다. 신체 전체(ghusl)를 닦는 것은 성관계, 혹은 월경 이후에 하는 것이다. 만일 물이 없는 상황이라면 모래로 씻는 것도 무방하다. 이슬람 사원에서 하는 합동기도도 중요하다. 무함마드는 “깨끗이 씻고 이슬람 사원에서 하는 기도의 상급은 집에서 하는 기도의 그것보다 27배나 많다. 또한 이슬람 사원으로 기도하러 가는 각 발걸음마다 죄에 대한 기록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그가 받는 보상은 한 단계 많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3. 구제금(Zakat)

무슬림은 그의 재산에서 이슬람세, 즉 구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 등,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한 몫으로 기꺼이 구제금을 내야 한다.

구제를 뜻하는 아랍어 자카트(Zakat)는 ‘정화’ 혹은 ‘성장’을 뜻한다. 이는 재산의 일부를 구제를 목적으로 나눔으로써, 한 사람이 가진 재산을 정화시키는 행동이다(꾸란 2:43; 110; 112; 277; 4:162; 5:58). 원래의 재산과 일 년 동안의 수입에 부과되는 것이다. 상품이나 현금일 경우는 2.5%이며, 땅에서 재배되는 과실일 경우에는 10%가 일반적인 관례이다. 구제금은 과부, 고아, 병든 자, 불행한 사람들을 돕고 이슬람을 전파하는 데, 그리고 메카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용된다. 이렇듯 구제금을 내는 일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이다. 종종 이슬람 정부



유혜석 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는 이를 국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정부는 수입의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하루에 필요한 곡물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자발적인 기부(Sadaqa)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꾸란 2:263). 자발적인 기부에 대한 사용처도 꾸란은 명시하고 있다. 자발적인 기부는 천국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4. 금식(Saum)

이슬람에서의 금식은 알라를 경배할 목적으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이다.

라마단 달은 이슬람력으로 9월로서, 가장 훌륭한 달이자 많은 복이 내린 달이다. 무함마드에 의하면 라마단 달이 시작되면 천국의 문들이 열리고 지옥의 문들이 닫히며, 사탄은 사슬에 묶이게 된다. 라마단 달에 금식을 하고 밤에 예배를 드리면 이전에 저질렀던 죄를 용서받는다고 한다. 라마단 달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꾸란이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마단 달에 금식을 하라는 명령은 꾸란에서 시작된다. “인류의 복음인 꾸란과 그 복음의 설명과 기준이 내려진 달이 라마단 달이거늘 단식을 실천하라 하셨도다...”(꾸란 2:185). 특별히 라마단 달 가운데 27일째 되는 밤은 라일라틀-파드르(능력의 밤)라고 하는데, 꾸란의 첫 계시가 임했던 밤이다. 이 때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무슬림들이 기도에 참여한다.

금식하는 것은 모든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춘기 이상의 무슬림들에게 의무적이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한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 여행자, 어린이, 노약자, 혹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월경 혹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들도 잠시 동안 라마단 금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

나 하지 못한 기간만큼 금식을 채워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금식을 깬 자는 자신이 저지른 커다란 죄와 창조주에 대한 거역 행위에 대하여 알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깬 날 수만큼 추가 금식을 해야 한다. 엄격한 사람은 금식 중에 침도 삼키지 않는다.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흡연을 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거나, 사교를 하거나, 향수를 바르거나, 성교하는 것도 금지된다. 추가적으로 도박, 음담패설, 분노, 여자의 화장 등도 금지된다.

5. 성지순례

성지순례란 메카에 있는 알라의 집을 방문하여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순례는 몸과 정신이 건전하고 순례할 나이가 된, 능력이 있는 모든 무슬림의 의무다(꾸란 2:196-203; 22:26-33). 그러나 건강이 허락하지 않거나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순례를 하지 못하지만 경제적인 지출이 가능하면, 타인을 통해서 대신할 수 있다. 메카의 카바 신전은 아담과 이브가 알라를 경배했던 곳이며, 이후에 알라의 명령을 받은 이브라힘(아브라함)과 이스마일(이스마엘)이 카바 신전을 건축하였으며(꾸란 2:127), 여러 번의 재건축 과정을 거쳐서 메카의 부족들이 그 검은 돌(黑石, 운석으로 추정됨)을 놓을 때 무함마드가 그들과 함께하였다.

맨 처음 메카로 성지순례를 하라 명령한 것은 이브라힘(아브라함)이었다(꾸란 22:27). 하디스(Hadith)에 의하면 무함마드는 “나의 사원(메디나의 선지자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사원에서 드리는 것보다 천 배나 더 좋다. 그러나 하람사원(메카)에서 드리는 예배는 십만 배나 더 좋다”고 하였다.

또한 이곳은 무함마드가 최초의 무슬림이 된 곳이다(꾸란 27:91). 여성이 성지순례를 원하면 ‘마흐람(mahram)’이라고 불리는 보호자와 동행을 해야만 한다. 마흐람은 남편이나 결혼이 불가능한 남성들이다. 꾸란에 의하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행함은 중요하다. “그때 선행이 많았던 자들은 번성할 것이며 그의 저울이 가벼운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잃고 지옥에서 영생하며”(꾸란 23:102-103)라고 기록되어 있다.

6. 지하드(Jihad)

지하드는 이슬람 종파에 따라서 종종 이슬람의 6번째 행위강령에 포함되기도 한다. 무함마드는 알라에게서 온 계시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에 의하면 “나는 사람들이 ‘알라 외에는 경배 받기에 합당한 자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알라에게 명령을 받았노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는 자가 그의 생명과 소유를 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

지하드는 꾸란의 명령이기도 하다.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을 대비하여 복병하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자카트를 낼 때는 그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 주리니 실로 알라는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꾸란 9:5) 꾸란과 하디스에 의하면 지하드는 종교적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자신 혹은 이슬람 사회에 있는 악을 몰아내는 행동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는 전쟁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대적하여 이슬람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지정되어 있다(꾸란 8:37-39). 꾸란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추방하거나 파괴하려는 열정을 볼 수 있다(꾸란 4:101). 꾸란의 알라는 인간의 선행과 이슬람법 순종 여부에 기초하여 인간에 대한 용서를 결정한다. 살아 있는 동안 천국에 관한 보증은 없다. 왜냐하면 알라가 심판의 날에 용서할 자들과 벌할 자들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하드에서 죽은 자만이 곧장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약속되었다. “알라의 길에서 순교한 자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알라의 양식을 먹으며 알라의 곁에 살아 있느니라 그들은 알라가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 뒤에 올 그들 순교자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그곳의 그들에게 두려움도 없으며 슬픔도 없으리라”(꾸란 3:169-170) 기독교에도 피의 역사는 있어 왔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마 26:52)고 하셨다. 반면에 이슬람의 꾸란과 하디스는 지하드를 지지하고 있다.

CGMA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 목사고시 공고

응시 자격 : 본 교단에서 인정할 정규 신학대학교의 MDVI 과정을 이수한 자

목사고시 일정 안내

1. 서류접수 마감 : 2016년 1월 25일 까지 (우편 소인)
2. 제출 서류 : 1) 이력서 2) 신앙고백서 3) 자기 소개서 4) 졸업증명서 5) 성적증명서 6) 고시료 \$400 Check (Pay to: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3. 고시과목 : 1) 논문 : 이민 목회의 비전 (30페이지 이내) *1월 25일까지 이메일이든 메일로 접수
2) 주해 : 마태복음 5장 3절~10절 산상보훈 *1월 25일까지 이메일이든 메일로 접수
3) 설교 : 본인이 본문과 제목 선택하여 설교문 작성하여 메일 필기시험 과목 : 구약, 신약, 교회사, 신조, 요리문답, 일반상식, 면접
4. 고시 사전 교육 일자 : 2016년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5. 고시일자 : 2016년 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6. 고시장소 :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강의실
7. 서류 및 논문, 주해, 설교 접수처 : 681 S. Bonnie Brae ST, #103, Los Angeles, CA 90057
이메일 접수처 : hananimsarang@hanmail.net
hananimsarangkijy@gmail.com
8. 문의 전화 : Tel (213)999-6884, (213)272-6031
9. 고시 합격자들은 2016년 3월 7일 월요일 서부지역회와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남부지역회에서 안수를 합니다.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고린도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조병수 | 성서유니온 | 396쪽

고린도전서를 오늘 날 우리의 언어로 좀 촘촘하게 엮어낸, 정밀하고 실천적인 성경 읽기 학자이자 목회자인 저자는 '우리는 한 몸이라(고전 10:17)'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당시 고린도 교회와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너무도 닮아 있는데, 저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 세심한 답변을 남겨 놓은 바울의 목소리를 오늘 우리에게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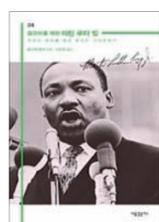
오늘 대한민국을 설교하라
박영근 | 생명의말씀사 | 216쪽

수사학 중 '로고스'에 집중, 메시지를 준비할 때 필요한 능력을 기함과 조직, 정보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기획'은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마음에 맞춘 설교를, '조직'은 수사학에서 제시하는 6가지 조직화 방법을, '정보'는 설교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수집법과 확보된 정보를 요리하여 최상의 설교 작성을 위한 5가지 방법을 각각 제시하며 '살아 있는 설교'를 꿈꾸게 한다.



젊은이를 위한 마틴 루터 킹
울리히 벨커 | 새물결플러스 | 98쪽

저자의 '젊은이를 위한' 시리즈 국내 3번째 발간 도서로, 소책자 형태의 부담 없는 분량이다. 인종차별 반대운동을 하면서 매 순간 살해 위협과 협박에 시달렸지만,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향한 그의 소망은 꺾이지 않았다. 그가 가진 신앙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힘과 용기를 줬기 때문에 끝까지 '비폭력 저항'을 놓치지 않았다. 40여 장의 사진이 첨부돼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노마드대디
황영현 | 비전북 | 236쪽

자녀교육에 있어 갈수록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아빠'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행동 지침을 전수하고 있다. 체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력, 분별력으로 '노마드대디'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교육 현장에서 아빠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미래를 힘차게 열어 가는 멋진 도전에 많은 아빠들의 참여를 권한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떠났던 세대가 돌아오는 美 ‘젊은 교회들’ 이야기”

살아 있는 예배와 역동적 사역이 있는 10개 교회

진정한 발전은 언제나 성경적 본질과 신학적 진리 위에서 지속적인 개혁(reforming)과 형성(forming)의 과정을 거친다. 처음에는 역동성을 갖고 시작된 운동도 변화와 도전을 만나 쇠락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때마다 새롭게 재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 역시 새로운 회심과 본질에 기초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풀러신학교원 교수인 저자가 미국 교회를 연구하여 「Re_form Church」를 펴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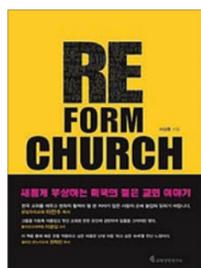
그들의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수

년간 북미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예배와 사역 현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연구하면서, 저자는 새롭고 창의적인 사역 패러다임을 발견했다고 한다.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모여드는 현장에는 살아 있는 예배와 역동적 사역이 있었다.

그러나 진정 놀라운 것은 단순히 교회를 떠났던 세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현상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했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 세대(Jesus' missional generation)가 되길 원했다.

거기에는 모이는 교회에서 흠여지는 교회로, 세상 속에서(in) 세상



Re_form Church
이상훈
교회성장연구소 | 240쪽

과 함께(with) 세상을 위해(for)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변화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과 새롭게 피어오르는 생명력이 있었다.”

책은 각자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새로운 10개 교회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기반으로 했다. 한국교회에의 적용을 염두에 뒀다고 한다.

새물결교회나 월로우크릭교회 등 우리가 잘 아는 곳들이 아니라서 신선하다.

이 10개 교회 각각의 특징을 저자는 ①전통과 가치(크리스천 어셈블리) ②문화와 예술(모자이크교회) ③사회정의 실현(웨스트교회) ④지역 섬김(드림센터) ⑤네트워크(오스틴 스톤 커뮤니티교회) ⑥깊은 예배(리얼리티 LA교회) ⑦공동체(소마 공동체) ⑧창조와 혁신(락허버교회) ⑨도시선교(LA 뉴

시티교회) ⑩제자도(뉴송교회)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교회를 배우자거나 그들의 교회 구조나 사역, 프로그램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보이는 외적 형태보다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정신과 영성의 본질이 어떻게 회중과 공유되고 진정성 있게 세상 속에 표현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는 것”이라며 “한 사람의 비전과 획일화된 사역이 아니라, 모두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 사역에 다양한 모습으로 동참하는 창조적 사역인 '선교적 교회'의 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대용 기자

201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및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종합원
- 기독교학(PhD), 목회학(PhD), 신학박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4)313-407-469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열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issions@aeu.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근대 일본 정신사에서 기독교 역할”

복음 전파와 수용의 발자취로 돌아보는 일본의 어제와 오늘

근 해결 방안이 합의되었다는 한 일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가해자의 법적 책임과 진정성이 결여된 가운데 두 나라 근현대사의 해소되기 힘든 그림자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오늘의 상황에서 이 책은, 각기 다른 궤적을 그려 간 두 나라 기독교와 사회상의 단면들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성찰하게 한다. 선교의 무덤이라 불리는 일본과 ‘일본적 기독교’의 실체는 무엇일까?

대학 학부 시절 일본 기독교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지금까지 30여 년 넘게 이 분야의 연구에 전착해 온 저자는, 이 책에서 일본 기독교 역사의 여러 가지 양상을 선교 역사로 꿰뚫어 정리했다.(일본의 많은 신학교에서 이 책은 일본 기독교사의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 프로테스탄트 선교 150주년(2009)을 맞는 해에 출간된 이 책은 하비에르(1506-1552) 이전의 기독교 선교 가능성에 대해 다루는 한편, 프로테스탄트 교회사 서술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교파와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일본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비중을 두었다.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특히 근세 이후 격변기와 함께해 온 기독교의 수용 과정에 대해 저자는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20세기 이후 한반도와 중국 및 동남아시아 일대로 일본 군국주의가 확장되어가는 가운데 파행적인 길을 걷게 된 일



일본 기독교 선교의 역사
나카무라 사토시 | 박창수 역
홍성사 | 272쪽

본 기독교의 실상을 가감 없이 보여 준다.

이 책은 5부로 되어 있으며, 본문 뒤에는 저자의 주,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의 일본 기독교사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연표, 인명 찾아보기가 수록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예수회 신부 프란체스코 하비에르가 일본에 온 1549년을 기점으로 기원 4세기 경까지 거슬러 올라가 일본 고대 역사 속에 기독교가 유입된 흔적을 논하는 입장들을 정리하며 비판했다.

제2부에서는 하비에르의 입국

과 더불어 시작된 가톨릭교회의 선교와, 이에 대응하여 기독교도를 박해하고 금교(禁敎) 조치를 내리며 쇄국기에 들어간 무사 정권 시기 [전국戰國시대(1467-1573) 말기~아즈치 모모야마 시대(1573-1603)] 및 이후 에도 시대(1603-1868) 후기까지의 이야기를 풀어 갔다. 기독교 역사와 일반 역사가 한데 얽힌 시대의 갈등과 명암이 뚜렷하게 대비된다.

제3부에서는 일본 프로테스탄트 선교의 선구자들이 활동했던 일본이 1854년 미국 함대의 내항(來航)에 따라 문호를 개방하기 이전부터 대동아 전쟁으로 알려진 태평양 전쟁(1941-1945)에서 패전하기까지를 다루었다.

제4부에서는 패전 후 일본 개신교의 자성의 모습과 성과가 소개되며, 다른 한편 패전 이전의 군국화를 꿈꾸는 정권에 맞서며 기독교인다운 자기 정체성을 세워 가려는 일본 개신교의 오늘의 상황을 진지하게 다루었다.

끝으로 제5부에서는 1858년 프랑스와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된 가톨릭교회의 일본 선교와, 1861년 니콜라이 주교가 일본에 입국하면서 본격화된 러시아정교회의 일본 선교로부터 이 두 교회가 현재까지 일본 사회에서 존립해 온 과정을 정리했다. 이영인 기자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사명’을 맡기신다



그 한 사람(말씀이 들리는)
김양재
두란노 | 376쪽

나는 도대체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인가?

이 책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7장 17절까지, 김양재 목사의 깊은 큐티 묵상을 담은 내용이다. 자녀를 낳게 해달라는 욕의 기도로 시작해,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영의 기도를 드린 한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져 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때 시 때마다 말씀이 들리는 자를 찾으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그날그날의 말씀 묵상으로 자신의 인생을 구속사로 해석해 나간다. 힘이 들지라도 말씀 때문에 자신의 환경에 순종하기로 하면 옛 자아가 죽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기에,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말씀이 들리는 것’이며, ‘말씀이 들리는 나는 수지맞은 인생’이 된다.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도 한나와 사무엘처럼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 책은 제1부 욕의 기도가 변하여 영의 기도로, 제2부 말씀이 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3부 미신이 뿌리 뽑힐 때까지, 제4부 비로소 말씀 앞에서 등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저자인 김양재는 가정회복 사역에 평생을 바쳐온 목회자다. 현재 한국 우리들교회 담임목사다.

‘목욕탕 교회, 때밀이 목사’는 바로 김양재 목사를 일컫는 별칭이다. 우리들교회에 가면, 김양재 목사를 만나면 사람들은 위선과 체면, 인격이란 가면을 벗고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낸다. 가솔 직전, 부도 직전, 이혼 직전, 자살 직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서로 때를 밀어 주면서 시원함을 느끼고, 치유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고난 당한 사람들의 병원이요, 안식처인 우리들교회는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운다더라”, “고난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 교회더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개척 13년 만에 출석 성도 1만 명으로 성장했다.

저자 김양재 목사는 4대째 모태 신앙인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으며, 서울에 숭고대학교와 총신대학교 강사를 지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했고, 현재 큐티선교회 대표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홍성사), 《복 있는 사람은》, 《습관을 들이는 100일 큐티노트》,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큐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새 말씀 새 부대 새 노래》, 《천국을 누리라》, 《천국을 보여주는 인생》, 《나를 살리는 회개》, 《뜨겁게 행하라》, 《절대복음》, 《절대순종》, 《가정아, 살아나라》, 《가정아, 기뻐하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 《보석》, 《상처가 별이 되어》, 《보석상자》,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 《면접》, 《프리포즈》(이상 두란노) 등이 있다.

이영인 기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매우 천천히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왜 더디 일하시는가?’, ‘어떤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 등, 성도로 살면서 한 번쯤 품었을 의문들에 대한 80세 노신학자의 ‘응답’이다.

책에서 저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며 “살아 있는 한 아직 끝은 아니다”는, 어떤 의미에서 뻔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되 매우 천천히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께서 천천히 일하시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마틴 로이드존스 목사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R. T. 캔달
순전한다드 | 288쪽

후임으로 1977년부터 25년간 웨스트민스터 채플 담임목사로 섬

겼으며, 성령의 역사가 확연히 드러나는 성경강해와 함께 ‘거리의 복음전도자’로 유명했다. 2002년 은퇴 이후 미국으로 이주해 저술과 강연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또 ‘알렉산드리아 평화협상’ 일원으로 PLO 의장이었던 야세르 아라파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주요 한글 번역 저서로는 <거룩한 불>,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 <내일의 기쁨부름(이상 순전한다드)>, <자기 용서>, <은유와 위엄>, <완전한 용서(이상 조이선교회)>, <조지신학 요약 설교 I·II·III(크리스찬다이제스트)> 등이 있다.

책 제목은 뉴욕 양키스 포수 요기 베라의 유명한 명언(It ain't over till it's over)을 그대로 썼다. 저자가 이 ‘명언’을 좋아해 제목으로 쓰였다고 요청했고, 허락을 받았다. 이대용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역명당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대리점 모집

젊게 하는 세제 "에미나"

우리 가정에서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를 친환경, 무공해, 항산화 효소세제인 “에미나”가 이제 대신합니다.

일본에서 토양 속의 이로운 균을 이용하여 효소로 제조된 “에미나”는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생활 용품, 세차, 어항, 냄세제거,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 관리, 화초, 텃밭가꾸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무공해 친환경 세제입니다. “에미나”는 세제구입 비용과 물을 절약 할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세제입니다.

바꾸세요
비누세우기 건강 지킴이

Pure Soap emina99

99% 純石鹼

식당 화장실 냄새제거 특효
“에미나” 스프레이 하시면 어떤 냄새든지 쉽게 없어집니다.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지독한 식당의 화장실 냄새가 없어지지 않으면 환복해 드립니다!

【가정 필수 제품: 밥줄】
밥 지을 때 밥술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필수 제품: 생생 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사용 효과

- **세탁:** 적은 양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시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고 먼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굼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됩니다.
- **집안(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뿌리면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곰팡이, 화학물질, 갈마 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뿌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굼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쉽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기루를 땅에 뿌리거나, 작물에 스프레이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바꾸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질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추 작물을 사람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뿌리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극소량을 치약에 발라 사용하면 혀면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나 먹지는 마십시오.**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뿌리면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방창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3~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가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시(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뿌려 주시면 됩니다.
- 작물에 뿌릴(스프레이) 시 1/5,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은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달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 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Yirrh Healthy Living Co. 이레 건강

Tel:323)316-6815

833 S. Western Ave. #15 L.A, CA 90005(로테오 갤러리아)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우드급 제1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책장, 편지봉투, 전문
juni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양공 실교서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엽서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에 구비되어 있으나 불시적으로 품절될시와 더욱 다양한 상품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تون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I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척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골든씰 Golden Seal 천연영양생제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301 East 23rd St. Carson 90745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Creating a 'Synergy Effect' Through Unity

'1.5 Generation' Korean American Pastor Shares Vision for and Thoughts o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BY JANG SUP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Reverend John I. Moon, who is currently in his early 50s, immigrated to the U.S. with his parents in the sixth grade and was educated in America, but currently, he is in a peculiar position as the head pastor of a Korean immigrant church. Prior to reaching his current position, he has had various experiences in churches both big and small. He is also well-versed in ministry with both first and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Currently, some 100 people find their home in Hanwoory Presbyterian Church in Reseda, CA, where Moon has been serving as the senior pastor for the 13th year.

"There are unexpected turns here and there, but pastoring has been joyful as ever," Moon said.

The following is an interview with Moon, in which he shares his vision and thoughts regarding the ministry at Hanwoory, and the immigrant church in general.

Q: First, could you introduce

some of your personal faith and ministry experiences?

A: I started attending Long Beach Korean Community Church in 1976, and then spent 10 years at Dong Shin Presbyterian Church, which is where I would call my home church. Then I served as an education department pastor at Hanbit Presbyterian Church and was ordained as a pastor there in 1993. After that, I served at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for 11 years under the leadership of Rev. Hee Min Park, and learned many things about pastoral ministry. I served in youth ministry, college ministry, as the education department head, and in various other ministries, and got to lead both first and second generation members. You can say that this was a pretty unique experience for me as a member of the '1.5 generation.' Then I served at Glend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for a little bit, and soon received an invitation from Hanwoory Presbyterian Church. I majored in engineering at UC Irvine and got my M.Div.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here I also studied for a doctoral degree.

Q: What is your vision for pastoral ministry?

A: In regards to the congregant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is spirituality. It wouldn't be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spirituality is everything. The reason congregants cannot live out their lives like Christians is because they do not have a thriving spirituality. But this kind of spirituality can only come from worship, the Word, and prayer. Therefore, pastors must correctly preach the Word of truth every worship service. Pastors must also ensure that corporate prayer, personal prayer, and intercessory prayer are a foundation in the lives of the church members.

Q: What are your thoughts regarding the gap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in the immigrant church?

A: It's so unfortunate that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have a hard time uniting together. A



Reverend John I. Moon is the senior pastor of Hanwoory Presbyterian Church.

member should be able to go through Sunday School, then youth group, and grow up into the adult services, and fellowship and serve together with everyone else, but the reality is that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are unable to have the same worship services and can only serve together in a limited capacity due to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To overcome those barriers, unity between the two generations is essential. I grew up helping my parents, who worked all night making donuts to earn one to two dollars. And because of that, I'm able to understand some of their pain. At the same time, I grew up with fellow Korean Americans and with an education here in America, and because of those experiences, I'm able to understand their pain as well. My hope is that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in Hanwoory Presbyterian Church could grow powerfully as a body that is bound together and brings about a powerful synergy effect through their unity.

Q: What do you think is an important aspect of the immigrant church?

A: A pastor who I respect once taught me, "Ministering in an immigrant church must be a ministry of healing!" First generation

Koreans living as immigrants here are unable to clearly speak up for themselves, whether in the workplace or in society as a whole, and as a result their daily lives are often frustrating and lonely. To them, the community called church is a spiritual, emotional, and mental refuge where they can speak for themselves and share their hearts. At the same time, churches can encounter conflicts for those very reasons. And that's because without an experience of God's grace, what we say always has potential to make things actually difficult for the church.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healthy growth, but also many stories of brokenness and splits in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I've had painful experiences of churches splitting into two during a period of growth. This is the reason that the immigrant church must be a community that brings healing, and sermons preached by pastors of immigrant churches must focus much on healing. A member who experiences healing through the Word grows to become a healthy part of the church.

This interview has been shortened. For the full article in English, visit christianitydaily.com. For the original in Korean, visit kr.christianitydaily.com.



Hanwoory Presbyterian Church, located in Reseda, CA, currently has some 100 members.

Hyeon Soo Lim Shares Experiences Through First Foreign Media Interview

BY RACHAEL LEE

The condition of Reverend Hyeon Soo Lim, Korean Canadian pastor who was sentenced to hard labor for life in North Korea, was released to the public on January 10 through an interview with CNN. Lim said he continues to pray everyday, and that he is at peace regardless of the outcome.

"I pray for the country, and the people," Lim said in the interview. "I pray for North and South Korea to be unified so a situation like mine won't happen again."

Lim, who used to head Light Presbyterian Church in Toronto, was found guilty of numerous charges by North Korea's Supreme

Court, including criticizing North Korean leaders, trying to subver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using religion, spreading negative propaganda about the country to foreign countries, and helping North Koreans defect from the country.

Lim is now laboring in the North Korean prison, alone, eight hours a day for six days each week by "digging holes" to plant apple trees, according to the interview.

When asked by the CNN reporter how he is feeling, he says with a slight smile that he's "fine." The reporter notes that his condition "looks healthy enough," but adds, "though his loose fitting prison clothes make it hard to tell if he

has lost weight." He receives three meals per day and medical care, the report says.

Lim told the reporter that he has not been forced to accept any North Korean ideology.

He also said that he doesn't need much, but did request for a Bible. He added he "really need[s] letters from [his] family."

"I have realized so keenly how valuable my family is, how precious it is to me," Lim told CNN. "Family is a precious gift from God. I would like to tell my family I love them so much."

Lim is known to have visited North Korea over 100 times on humanitarian trips. He was arrested during his last trip into the

country on January 30, 2015, and since then, Korean communities in South Korea, Canada, and the U.S. have held numerous prayer meetings for his release.

Lim's sentence to hard labor for life was announced through reports on December 16.

Lisa Pak, who has been acting as the spokesperson for Lim's family and church, said soon after the announcement of Lim's sentence that Lim's supporters are hopeful that his sentence in prison will grant more leeway for diplomatic talks.

Canadian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told reporters that the Canadian government has "tremendous concern about it [his im-

prisonment]."

"The issues of North Korea's governance and judicial system are well-known and we are very concerned about someone being sentenced to life in North Korea," he said.

"We need to be able to meet with and ensure that Canadians are being properly treated everywhere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North Korea and we will be continuing to press North Korean authorities to allow us access," Trudeau added.

Meanwhile, an online petition demanding Lim's release from prison has been ongoing, and has some 120,777 signatures as of January 11, 5:40 PM PST.

Azerbaijani and Korean Communities Look Ahead for Future Partnership Opportunities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KCCD) hosted a meet and greet luncheon with the Consul General of Azerbaijan on January 11, during which they discussed how the Korean and Azerbaijani communities could partner together. Peace between religious groups was discussed particularly in detail.

Consul General Nasimi Aghayev said the Azerbaijani people consider "Koreans to be [their] brothers and sisters," and that "Korea is a very important partner for Azerbaijan."

"Currently, forty Korean companies are operating in Azerbaijan, actively participating in large local, state, and private projects," he added. "The cultural links between the Azerbaijani and Korean people are very strong. Our languages are members of the same language (Altaic)."

Aghayev went on to describe the religious atmosphere of the country, and explained that the nation has a majority Muslim population (95 percent), with over 450,000 Christians and 30,000 Jewish individuals. The total population of the country is estimated to be approx-



Members of the Korean community met with the Consul General of Azerbaijan on January 11.

imately 9.59 million.

"The principle of interfaith harmony and tolerance is very important to us," he said. "In Azerbaijan it is possible for Muslims, Christians, and Jews to live together in peace and dignity, respect each other and even admire each other."

Hyepin Im, president and CEO of KCCD, praised Azerbaijan as being "a shining example of leadership in promoting interfaith relationships" in the midst of "religious factions and wars ... so prominent in our world."

She further described this first meeting between Korean and Azerbaijani

Americans as "a beginning of a wonderful friendship."

"We look forward to many opportunities to work together," Im added.

KCCD has been active in creating spaces and gatherings for the Korean community to engage with other communities on a local or national level.

In August, the organization held a breakfast reception with Jewish leaders at the Israeli consulate office, and in December, it hosted a forum regarding homelessness with Korean church leaders, an L.A. city attorney, and LAPD officers.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AMES KWA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1st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SUNG CHANG
2nd Sunday Service: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Friday Night College Group: 6:00 PM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PASTOR MICHAEL LEE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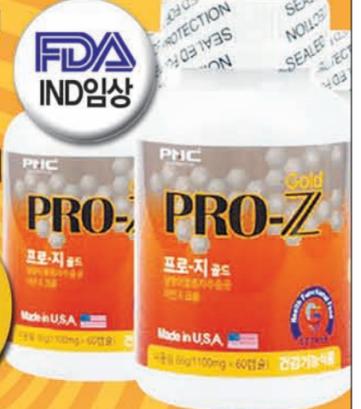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